World Mission Herald 2006

Mission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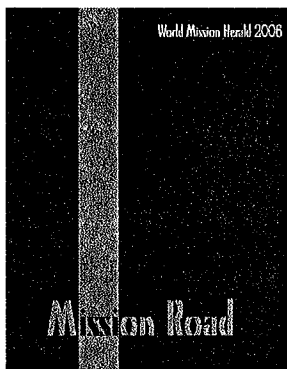
학생회지 발행을 축하하며 / 임 성진 학감

월드미션대학교는 세계를 향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적인 명문이 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는 성경말씀으로 바로 서고, 선교정신으로 불타는 교회와 세상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기독교적 신앙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바탕 위에 지식과 훈련을 쌓아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 있는 교육이념이 뜨거운 호응을 얻어 우리 대학은 단기간 내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세계적인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으며, 우리들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월드미션 가족 모든 구성원의 사랑과 헌신으로 온갖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는 학생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밝은 모습을 보며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중단되었던 학생회지를 다시 발간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이 학생회지를 통해 여러분이 유익을 얻고 귀한 학우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이 자신과 학교를 더욱 빛 낼 것입니다. 창조적이며 자발적인 여러분들의 노력이 교회와 세상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학생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학생회로 인하여 우리대학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원대한 꿈을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꿈을 위하여 / 김 덕호 (학생회장)

시간관리에 대한 책들을 보며,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없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겐 오늘만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현재 시각을 말할 때, 그 말하는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할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란 오늘을 산다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과거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적으로 그리고 과거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과거적으로 사는 사람을 살펴보면,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살기 때문에 늘 디프레스 되어 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꿈이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룰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미래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이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는 암담하지만 굴하지 않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며 그 때의 모습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갑니다. 마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는 좋은 추억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때부터의 과거는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캐서린 폰더, 지그 지글러, 조엘 오스틴, 브라이언 트레이시 등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 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쓰고, 이것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서 13-14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민수기 14:28)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 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미래에 모습을 바꾸기는커녕 마음 아픈 과거만을 만들어 갈 뿐입니다.

학우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꿈이 적혀있는 종이를 펴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얼마 후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게 변해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회지는 이러한 일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안에 잠재된 능력들을 찾아 개발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실습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쓰임 받게 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목차: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 신 선 묵 교수

신선묵 교수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일하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끔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헤아려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일하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한 분들과 동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번 멈추어 생각해보면 정말로 환상적인 만남들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감사할 뿐이다. 학교에서 함께 일하시는 전임 교수님들을 나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곱씹어 본다.

임동선 총장님은 모두가 따르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더 이상 설명의 필요가 없다. 사실은 내가 월드미션대학교를 통하여 임동선 목사님을 만나기 전 학위논문을 쓸 때에 이상적인 한국의 지도자를 네 분 연구를 하였는데 임동선 목사님은 그 중의 한 분으로 연구를 하였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을 직접 가까이서 모시면서 사역을 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책을 통한 것이 아닌 목사님을 직접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또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그 분을 배워가는 것이다. 총장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지도자의 크기에 대하여 많은 것을 느낀다. 큰 그림을 보고 큰 꿈을 꾸는 것을 배운다. 그릇이 커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작은 일을 대할 때도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

강준민 부총장님은 우리 동시대에 모두가 배우고 싶어하는 좋은 지도자이다. 사실은 우리학교의 부총장님이시지만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 외에는 자주 뵙지는 못한다. 그러나 설교와 사역 속에서 지도력의 개념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도력에 대한 연구를 하였지만 실제 교회 속에서 평신도들에게 지도력의 개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점에서 궁금한데 이점에서 많이 배우게 된다. 특히 개인적으로 나는 글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전을 받고 있다. 가장 도전을 받는 점은 큰 교회에서 큰일들을 하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배려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이다.

임성진 목사님은 매일매일 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도 하다. 임성진 목사님께는 항상 형과 같은 친근함을 느낀다. 그리고 늘 배우려고 성실히 공부하는 모습과 온유한 모습과 인내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런 점들에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운다. 내가 학교에 처음 와서 일을 시작하였을 때에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하나 있어서 학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었다. 그 때에 목사님이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면서 고맙게도 나를 붙잡아주셨다. 그때 잡아주셔서 벌써 7년째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에도 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임성진 목사님께 한번 잡히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시는 분이시다.

변명혜 교수님은 안식처와 같은 분이시다. 가끔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 쉼을 얻을 수 있는 분이시다.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하면서도 결코 자랑하거나 욕심을 내는 법이 없는 분이시다. 특히 자녀교육에 관하여 도움을 받는다. 자녀들에게도 영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자녀들의 영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늘 지적해 주신다. 사실상 미주사회 속에서 변명혜 교수님처럼 자녀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탁월한 분은 없을 것이다.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나 힘들 때에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위로를 받을 분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한 교수님들 사이에 혹시라도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은 거의 없다) 항상 중간에 서서 잘 조화를 시키시는 윤활유와 같은 분이시다.

이근철 교수님은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분이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철학에 관심이 많이 있다. 그런데 철학의 분야에서 궁금하거나 혼자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을 때에 달려가서 도움을

구한다. 그러면 명쾌하게 도움을 받는다. 이근철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늘 현대 철학에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근철 교수님같이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또한 이근철 교수님에게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배운다. 이근철 교수님과는 신학교를 거의 같은 시간에 다녔는데 우리 동문들이 서로 만나고 싶을 때는 항상 이근철 교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 그 만큼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관심 있게 대하는 분이시다.

윤임상 교수님은 아마 남가주에서 가장 탁월하신 음악가일 것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나도 어렸을 적에 꿈이 지휘자였는데 윤교수님이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늘 부러움을 느낀다. 너무 멋있다. 윤교수님 덕분에 수준 있는 음악을 늘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음악 속에 깃들어 있는 좋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끔 해주시기도 하신다. 교수회의에서 말씀을 나눌 때 보면 확실히 음악과 신앙을 잘 조화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력이 탁월한 분이시다. 일에 대한 책임감과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 단시간 내에 음악과를 발전시키는 모습에 도전을 받았다.

이금희 교수님은 섬세한 분이시다. 나도 한때 영문학도였는데 이금희 교수님은 영어학으로 학위를 받으신 분이시다. 나는 영문학도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였지만 이금희 교수님은 끝까지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 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면이 있으시고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다. 연약한 듯 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는 철저히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글을 쓸 때는 이금희 교수님께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곤 한다. 그러면 꼼꼼히 읽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나하고 비슷한 때(?)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셨기에 옛날 대학시절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말이 잘 통한다.

John Park교수님은 2세 교수님으로 일을 깔끔히 잘하신다. 2세이면서도 1세들의 문화를 수용하려고 무척 애쓰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간다. 특히 John 교수님의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양심을 좋아한다. 그리고 항상 일을 할 때에 전체적인 사명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일을 차분히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점을 일깨워 주는 분이시다. 2세들의 장점인 합리성을 잘 지니고 있는 분이시다.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영어로 무엇을 써야 할 때마다 수정을 부탁하는데 John교수님이 한번 읽고 수정을 해주면 정말로 이렇게 써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난다. 내가 1.5세나 2세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손봐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보았지만 John교수님처럼 맘에 들게 수정을 해주시는 분을 많이 보지 못하였다. 기본기가 탄탄한 분이시다.

짧은 지면 관계로 함께 일하고 있는 전임교수님들만을 적어보았다. 그 외에도 함께 일하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직원 분들, 그리고 수업시간에 만나는 많은 학생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에 월드미션대학교로 인도해주시고 이 많은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이 귀한 분들 사이에 나도 함께 서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 이 분들이 나에게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듯이 나도 이분들에게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

귀한 분들 사이에
나도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다.

땅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2)

부끄러운 고백 / 남 종성 교수

남종성 교수

"먼저 테니스 채를 바꾸세요. 그런 라켓을 가지고는 동네 테니스 수준을 넘을 수 없어요"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하다 보면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 있을 때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어렸을 때 작은집에 살았는데, 작은집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주 충무체육관 주위를 다니게 되었다. 특별히 정구장에 가게 되면, 유니폼을 입고 연식정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구경하기도 했다. 부럽긴 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나 보다 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장성하여 신학교에 들어갔다.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교수님들이 가끔 테니스를 쳤다. 멋있어 보였다. 배가례 교수님이라는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계셨다. 당시에 60이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존경 하며 따랐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짧은 치마를 입고 테니스를 치시는 것이었다. 내 눈에는 파격적이었다. 정신을 차린 후에 공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신식 할머니는 뭔가 다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머릿속에 깊은 인 상으로 새겨져 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십자군 전도대에서 일하게 되었다. 십자군 전도대는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에 파송을 받아 4개월씩 2년 동안 근무하는 사역기관이었다. 이것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퇴근하고 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때 테니스를 잘하는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학교 다닐 때 선수생활을 하던 분이었다. 그 분에게 배울 기회가 있어서 몇 번 코치 를 받았다. 이분이 나에게 '남 전도사님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 말에 용기를 얻고 열심히 했다. 그러나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계속하지는 못했다. 내 기억으로는 대여섯 번 코치를 받은 것 같다. 재미는 붙었는데 같이 칠 사람이 없어서, 벽에다 대고 열심히 쳤다.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 탈봇 신학교에서 Th.M 과정을 공부하였다. 공부가 만만치 않아 처음 몇 개월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다. 거라지 세일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 괜찮은 물건이 많이 나와 있었다. 거기에 테니스 채가 눈에 띄는 것이었다. 1불을 주 고 2개를 샀다. 나무로 된 라켓이었는데 쓸만하였다. 바이올라 대학교에 테니스장 이 있어서 저녁에 시간이 되면 집사람과 테니스를 쳤다. 나중에 탈봇에서 공부하던 목사님들 가족도 조인하게 되었다. 즐겁게 운동도 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도 가 졌다.

특히 일본에서 온 워터루 와다나베라는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도 테니스를 좋아해서 함께 테니스를 치면서 많이 친해 졌다. 가족끼리 집 에 가서 음식도 나누고 목회에 대한 비전도 나누었다. 정직하고 신실한 친구였다 . 그 부인은 아주 싹싹하고 애교가 많았다.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다. 우상이 판을 치는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선택해 주 셨다고 생각했다. 테니스를 통해서 만난 귀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한번은 유혹이 왔다. 또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분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잘 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먼저 테니스 채를 바꾸세요. 그런 라켓을 가지고는 동네 테니스 수준을 넘을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듣고 당장 테니스 용품점에 갔다. 그 잘 친다는 사람이 일러준 대로 거금 140불짜리 라켓을 산 것이다. 50전짜리 라켓을 쓰다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유학생 주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것이다. 확실히 좋은 라켓을 쓰니 달랐다. 실력도 많이 느는 것 같았다.

탈봇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 오니 정기적으로 테니스를 치는 목사님들이 계셨다. 매 주일저녁에 모여서 테니스를 치는 것이었다. 파사디나에는 유명한 로즈볼 경기장이 있다. 풋볼 경기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 테니스 코트도 있었다. 로즈볼 테니스 선교회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서 테니스를 쳤다. 나오시는 분들이 초보적인 단계는 벗어나고, 그런대로 폼나게 치는 분들이었다. 나도 얼싸 좋아하고 그 모임에 조인을 하였다. 예전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다. 초보를 벗어난 비슷한 사람

들끼리 치니 그 재미가 여간 좋은 게 아니었다. 특히 복식을 치는데 더욱 재미가 있었다. 다행히 로즈볼은 밤 10시만 되면 자동으로 불이 꺼졌다. 절제 못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절제장치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승부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기거나 져도 근소하게 되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밤10시 까지 운동을 해도 시간이 부족했다. 당시, 차로 10분 정도 가면 칼텍(유명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이 있었다. 이곳은 밤새도록 불을 켜주었다. 이 쪽으로 옮겨서 테니스를 계속 쳤다. 그러다 보면 새벽1시 2시까지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니 사모님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제는 핍박의 차원이었다 .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밤늦게 까지 테니스를 치고 오니 사모님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했다.

그러나 회원들은 다시 모일 때 마다 각오를 다진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굳건히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호와 더불어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갔던 것이다. 이런 와중 에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의 테니스 라켓을 두 동강이 내버렸다. 어떤 경우는 사모님들끼리 연대해서 로즈볼 테니스 팀을 저지하겠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래도 우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했다. 사모님에 의해 테니스 채가 두 동강이 났던 목사님은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여 어김없이 로즈볼에 등장했다. 회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모들의 연대적인 투쟁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들은 더욱 굳세게 뭉치면서 '우리의 달려 갈 길' (?)을 달려갔던 것이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때를 생각하니 많이 부끄럽다. 많이 잘못했다. 테니스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테니스로 풀려고 하였던 것이다. 사모님들의 주장은 공부하다 쌓인 스트레스는 기도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회원들은 기도도 하지만 운동으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사모님들의 주장이 옳았다. 운동하는 것 자체를 말리는 것은 아니었다. 적당히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기도와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제 테니스장에 나가지 않은지도 4년이 넘어가는 것 같다. 오히려 너무 운동을 못하고 있어 염려가 된다. 한참 빠졌을 때는 비가 오거나 행사 때문에 테니스를 못 치면 실망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줄었다. 큰마음을 먹어야 한번 가서 운동을 하게 된다. 이제는 너무하지 않아서 문제이다. 사람은 균형이 중요한데,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요즘은 나의 아들, 성현이가 야구에 흠뻑 빠져있다. 공부도 숙제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다우니 지역 리틀 리그 야구팀의 선수이다. 제법 폼 나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빠져있다. 내 귀에 당시의 사모님들의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온다. '적당하게 하세요. 본질에 충실하세요.' 나의 아들이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면, 계속 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도 내 아들이 적당하게 하고, 본질인 공부하는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사모님에 의해 테니스 채가 두 동강이 났던 목사님은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여 어김없이 로즈볼에 등장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욥14:7-9

우리에게 구약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 김 선익 교수

김선익 교수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재 해석된 구약성경을 그들의 경전과 가르침의 근본으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구약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한 부분으로 신약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강단에서 구약성경이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구약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구약성경보다 신약성경에 더 친숙하며, 심지어 신약성경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구약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구약성경이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설교되는 비중은 해방 전에는 16%, 해방 후에는 23%로 약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신교 역사 100여 년 동안 설교된 평균은 26% 정도였고, 그 범위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 등 네 권의 책 정도에만 머물러왔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 전체의 분량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비교하여 본다면,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세 배가 넘는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분량에서 구약성경이 설교되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일선, 구약성서와 설교, 전망사, 1989, pp. 41, 44, 59)*

또한 한국어 성경 번역사를 보더라도 최초의 성경 번역은 1882년 누가복음이 출판 된 것을 시작으로, 1887년에 이미 신약전서가 완간되었지만, 구약성경은 1898년에 와서야 비로소 시편이 번역(시편촬요)이 되었고, 1911년에 가서야 구약전서가 완간되었다. *(김중은, "구약도 자주 설교합시다", 성경과 설교, 한국성서학 연구소, 1995, p. 10)*

그렇다고 구약성경이 강단에서 존경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밝히고 그 내용을 본질적인 부분들에 따라 설명하고자 할 때에 구약성경은 오히려 종종 골치거리가 된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신약성경의 내용을 진지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 설교자나 말씀 해석자들에게 종종 구약성경의 말씀은 필요하지 않거나 신약성경의 내용과 배치되는 듯한 인상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은연중에 시작된 구약성경에 대한 경시 풍조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경 전체가 우리의 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James D. Smart, The Strange of the Bible in the Church, 19-21)*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구약성경은 과연 어떠한 책이고 우리는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구약성경은 원래부터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경전인 히브리어 성서를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어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성경이었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재해석된 구약성경을 그들의 경전과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았다. 신약성경에서도 "성경" 이라는 말은 벧후 3:16을 제외하고는 구약성경을 가리킨다 *(요 5:39; 10:35; 행 8:32; 갈 3:8; 딤후 3:16; 윌리암 라솔, 구약개관,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0, p. 1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고 말씀하심으로 구약 성서의 권위와 영감성을 언급하셨다. 마 4:1-11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세 번이나 (마 4:4, 7, 10)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며, 신명기의 말씀들(신명기 8:3; 6:16; 6:13)을 인용하심으로, 구약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또한 주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항상 구약성경을 그의 증거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성경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유대인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본래의 뜻보다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 전통과 규례라는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적인 말씀으

로 만들어 버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통과 규례 속에 갇혀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재해석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으며 권위가 있는 동적인 말씀임을 그의 삶으로 보여 주셨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7장에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율법을 재해석해주신 것이나, 안식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외식과 외적인 경전에 치중하는 삶을 질타하시면서, 말씀으로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의 하나됨을(integrity)를 강조하셨고, 사랑과 용서를 강조함으로 유대인들이 간과하였던 성서의 주제들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둘째는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예언을 재해석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성경이 말하였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이를 통하여 구약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약과 율법을 삶과 몸으로 직접 이루셨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요 6:63)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해석된 구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요 5:39)이다 *(윌리암 라솔, 구약개관, p. 17).*

마태와 요한도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결을 시킨다든지(마 1:22; 2:15, 17, 23; 4:14; 12:17; 13:35; 21:4; 27:9), 모세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 1:17; 3:14; 5:45-47; 6:32; 7:19). 그러므로 일부(?)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구약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편견은 버려야 할 것이다. 오히려 신약성경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없이는 신약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끝임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립 얀시,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요단, 2001, pp.25-3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나 신약성서나 다 귀하여, 다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초기 초대 교회에게는 구약성경이 귀한 말씀이었고, 권위가 있었으나, 현재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에 비해 그 가치나 이를 연구하려는 열정이 덜하다면, 그 자체가 아이러니일 것이다. 물론 구약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는 것은 분량에서나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여러 본문들로 인하여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분량이 많은 만큼이나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읽어야 하고,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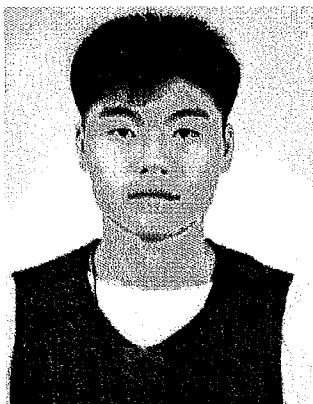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크거나 강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또한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신다. 욥, 예레미야, 요나 같은 거센 불평꾼들과 거리낌없이 토론하시고, 아브라함, 모세와 함께 논쟁하시며, 때로는 그들에게 승리를 양보하신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진지하게 대하시며,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계획에 참여시키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또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하신다. *(필립 얀시,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요단, 2001, pp. 41-47)*

만일 지금 구약성경을 집어 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말씀을 통하여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만해도 흥분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성경이 말하였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헤렘 사상과 현대적 이해는?

/ 김 영철 BA

김영철 BA

". . .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 . ."
(삼상 17:47하)

서론

성경을 읽는 초신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정말 같은 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약과 다른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구약 초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 정복 과정에서의 모습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의 중심에 놓고 잔인 하게 묘사 하고 있다. 이단의 하나인 마르시온은 이런 하나님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을 정도였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호전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특히 가나안 정복사에 나타난 "헤렘" 사상을 연구하여 보고, 헤렘 사상 속에 나타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대적 관점으로 조명하여 현대적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확고한 믿음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본론

I 헤렘 사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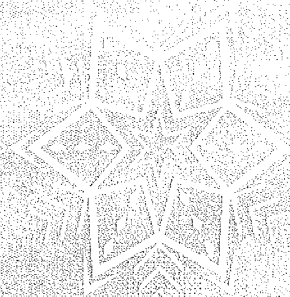
헤렘이란 말의 뜻을 살펴 보면, '바친다', '근절한다', '금한다' 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다. 이 말은 신명기 20장 10~18절의 말씀을 통한 전쟁의 방법 중 마지막에 나오는 멸절을 의미하는데, 우선 신명기 20장 10~18절에 나타난 전쟁의 방법을 살펴 보자.

첫째 방법은 10절, 평화 선포이다. 11절, 이때 화친 하기를 원하는 적군은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고 섬기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멸절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로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12~15절, 화친을 거부할 때 이다. 이 때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의 남자는 다 죽였다. 여자와 유아와 육축과 탈취한 것은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전리품을 허락 하셨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닐 때 가능하다. 앞의 두 방법은 일반전쟁 역사 기록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16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성읍들을 지칭하는데, 그 이유는 18절, 그 성읍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이 본 받아 하나님께 범죄를 할까 함이었다. 이 멸절에 포함된 성읍은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브스 족속에 속한 곳이었다. 이 헤렘은 가나안 정복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가나안 정복사에 잘 나타난 헤렘의 특징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의 과정에서도 "방어전이 아닌 공격전에 실시된 전법" 임을 볼 수 있다. 또한 헤렘의 범주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즉 여호수아 시대에 국한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된 것들에 제한"된다. 이런 특징을 모르고 "여호수아서의 이러한 전쟁의 기록들을 일반 전쟁의 기록으로 간주하여 기독교 식민주의자들이 약소 민족들을 정복하고 차지하는데 합법적인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여호수아서를 왜곡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햄린(Hamlin)은 지적한다."

앞에서 살펴 보듯이 이 멸절 사상, 헤렘은 가나안 정복사에서 여호와가 직접 주관하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서만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것 인지 살펴 보기로 하자.

II 여호와의 전쟁 이해

B.C. 4000년 까지만 해도 고대 근동 지역은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그 후 3000년대에 영웅들이 등장 하면서 전쟁을 통해 제국이 형성 되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들이 전쟁을 주관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구약성경에서도 전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수넵에 모인 블레

셋을 공격하려 할 때 사울이 여호와의 뜻을 물음에서 볼 수 있다. 즉, 그들이 구원 혹은 승리를 얻게 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결정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구원 혹은 승리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로 그들을 심판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로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심판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엿 볼 수 있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능을 알게 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 지는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승패 결정,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짐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전쟁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국가 형태가 존재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초기부터 다윗 왕조를 전후하여 정치 군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생존과 안보가 보장되던 때를 여호와의 전쟁 범주로 본다.

이때의 여호와의 전쟁의 첫째 특징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적자들이 곧 그들의 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 이다. 출애굽 시 바로(출9:20), 라합과 친족을 제외한 여리고 사람(수6장), 아말렉(출17:8-16), 등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 되어 하나님이 싸우신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의 적은 되지만 하나님의 적이 아닐 경우 이스라엘이 되려 심판을 받기도 하였다. 유다 말기의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의 적이었다. 둘째 특징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전쟁이 수행되는 전쟁"을 말한다. 홍해 사건(출14:13-14), 여리고성 (수6장), 이때 인간의 참여는 완전 배제 되고, 또한 승전의 대가는 하나님께만 주어짐을 아간의 범죄(수7장)를 통해 볼 수 있다. 셋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생존권 획득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 . ." (수7:9a)라는 고백을 통해 생존권의 위협을 느꼈음을 시사한다.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 받아야 되는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승리로 이끌어 주었다(대하20:15). 넷째 특징은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한 장면으로 보는데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와 고난과 시련은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 다섯째 특징은 헤렘, 진멸사상으로 일반 세속 전쟁에서의 살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의 범주 안에서의 살해를 말한다. 이는 십계명에서 살인금지법과 상치되어 보이지만 십계명의 살인은 동족을 향한 법이고 헤렘은 이방신에 속한 것들을 다루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런 특징들을 볼 때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긍휼과 공의 속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모든 것들에 행해진, 때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 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앞의 헤렘 사상과 여호와 전쟁 이해를 통해 전 인류를 긍휼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 알아 보았다. 현대에 와서는 전쟁이 어떤 관점으로 조명 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III 현대적 전쟁 이해

주전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 정세는 거대한 제국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평화를 가장한 제국의 영토 확장은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후 로마 제국은 기독교화 되면서 복음이 제국 곳곳에서 흥왕 하였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전쟁의 개념을 정립하려 시도를 보이기 시작 했다.

터툴리안은 황제의 즉위식 때 병사들에게 선물한 하사금을 거절한 한 기독교인 병사의 순교 당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군복무를 복음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양심적 참전반대를 절대적으로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후 성 암브로우스는 그리스도인의 전쟁윤리를 처음 형성한 인물로 정당전쟁론의 두 가지 요소를 제공 하였는데 하나는 전쟁 행위가 정당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현대에 와서는 전쟁이 어떤 관점으로 조명 되어 왔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국한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적을 상대로 치른
하나님의 전쟁

성직자는 전쟁 행위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다. 암프로우스가 대략적으로 밝혔던 입장을 성 아우구스티누스(성 어거스틴)이 체계화 하였다. 어거스틴의 이론들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7세기 초 대 그레고리라 일컬어지는 서유럽의 교황이 그 당시의 신학체계를 확립하여 중세 가톨릭 기독교에 전수해 주었고 기독교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가 정립한 정당전쟁론은 첫째, 합법적 권위에 의한 전쟁 수행 명령은 때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합법적 권위 밑에 서라야 참여자의 정당성이 인정 되고, 그 참여자의 행위도 정당해야만 한다. 즉, 윤리적 인도주의를 말하고 있다. 둘째, 악한 집단을 악에서 구하려는 사랑의 동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 전쟁으로 얻은 평화는 승자와 패자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거스틴 이후 신학 대전을 쓴 성 아퀴나스는 최상의 주권을 가진 권위에 의해, 악행을 하는 자의 잘못에 대해, 선을 증진 시키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정당한 전쟁론의 생각들이 나올 때 일어난 십자군 전쟁은 교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이슬람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 전쟁을 일으키지만, 교황의 권위 아래 행해진 십자군 전쟁은 정당전쟁론에 비춰 볼 때에 악행을 하는 자의 잘못을 제거 하기 보다 악한 일을 더 행하였고, 선을 증진 시키기 보다 이슬람과 유대인들의 큰 증오만을 남기게 되었다. 오히려 교황의 교권만 강화 시켜주는 교회적 도구가 되었다.

맹용길은 정당전쟁의 가능성을, 인간의 생존에 근거, 집단 안보를 위해, 공존의 기준에 의해서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약의 하나님 저자 강사문 교수는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공존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서로의 위치와 상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사는 길, 서로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삶이 성경이 추구하는 메시아 왕국의 삶이라고 말한다. 즉, 생존권 보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기에 그 외의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같은 논리로 걸프전에서 미국과 이라크 어느 쪽도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전쟁이 아니기에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결론

헤렘 사상의 공부를 통해, 구약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 하실 때 일어났던 진멸 사상으로 한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던 나, 필자도 여호와의 전쟁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알게 되어 구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헤렘의 진멸 사상 속에는 이방인이 붙잡고 섬기던 이방신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드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공부하던 중에 강사문 교수님의 글에서 빈부차이,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갈등을 해소 하며 공존하는 삶이야 말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을 접했을 때 언 듯 종교 다원주의의 의미가 느껴졌었다. 그리고 여호와 전쟁의 특징에서 생존권 보장에서만 하나님의 전쟁으로 간주 된다는 말을 보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면서 절규한 것이 앞으로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간구 했던 것 이겠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아간이 여호와의 전쟁의 전리품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에도 그것을 취함으로 일어 났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하는 말은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나, 필자는 헤렘 사상의 범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국한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적을 상대로 치른 하나님의 전쟁이란 것을 알았다. 현대에 들어와서 정당 전쟁론의 확립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세속 전쟁에 참여하는 기준을 잡아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헤렘의 범주를 단지 구약의 가나안 정복사에 만으로 축소 시켜야 할까? 필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의지해 볼 때 세상의 끝날, 즉 예수님이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 헤렘은 한번 더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심판의 날이 올 때 까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 공생에 기간에 제자들에게 우리의 대적 악한 사단과 맞서 승리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인 사람을 모으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양육하라는 명령에 의지하는 우리는,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날을 향한 영적 전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전쟁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 지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간섭하고 계신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참고 도서

강사문. 구약의 역사 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2002.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9.
알버트 마린. 오만규 옮김. 전쟁과 그리스도의 양심: 어거스틴에서 마르틴 루터 킹까지. 서울: 성광문화사, 1982.
브루스 셸리. 박희석 옮김.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경기, 고양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R. H. 베인튼. 채수일 옮김. 전쟁 평화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여호와의 전쟁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 지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목회자가 성경 읽기가 더 어려운 것은 늘 상 겪는 일이다. 그래도 나는 평생 성경 읽는 일 만큼은 부지런 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것은 신학교 2학년 부흥회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

그 때 강사는 <신앙생활>이라는 월간잡지를 발행하던 김인서 장로님이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형제들이 안수 받고 축도하기 전까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지 않고 목회하면 도둑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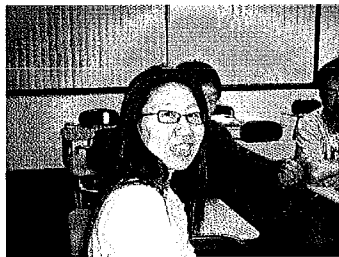
그 때 받은 충격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 세 장 신약 열 장을 매일 읽었다. 그렇게 하니 일년에 구약을 세번 신약을 열 번 읽게 되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귀에 쟁쟁히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얼마를 읽었더니 성경의 줄거리가 파악되었다. 중요한 요절이 어디 있는지도 대강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읽은 성경책은 종이가 피어나서 부피가 커졌다. 성경 원문글자가 마모되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붉은 검은 줄이 복잡하게 그어져 있고, 난외에는 설교의 대지들이 새까맣게 적혀 있어 나의 늙어가는 모습을 닮고 있다.

이 성경 때문에 북침례신학교의 신학석사 과정 졸업 구두시험에 통과되었다. 교수님들이 둘러앉아 한 시간 20분이나 구두시험을 보는데 이런 성경 구절은 어디 있느냐, 저런 성경 구절은 또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였다. 내가 그 낡은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해 나가니까 교수 한 분이 그 성경을 좀 보자고 했다. 그 교수는 그걸 손에 번쩍 들어 이 책 좀 보라고 다른 교수들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을 이만큼 읽었으니 그만 묻자고 했다. 그래서 졸업시험에 통화하게 되었다. 성경책이 졸업시켜 준 것이다.

-목회간증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중에서 / 임동선 목사 -

주님은 내 친구 / 이 귀란 BA

이귀란 BA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헉! 하고 숨이 막혔다. 이곳은 태국. 선교지에 도착한 것이다. 열대기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등줄기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까마잡잡한 얼굴에 뭉뚝한 코, 하나같이 예쁜 눈을 가진 현지인들. 새롭게 만나게 된 사람들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고, 사는 것이다. 그래, 선교는 그들과 함께 그냥 사는 것이다. 모든게 낯설었지만, 그곳엔 익숙한 얼굴도 있었다. 바로 주님이 내 옆에서 동행해 주고 계셨기 때문이다.

첫 주부터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언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현지인들의 눈에는 내가 마냥 어린 아이 같았으리라. 3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유치부를 돕던 가정이 멀리 이사를 가버렸다. 7-8명이 올망졸망 앉았는데 선생님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첫 사역. 안타깝게도 주일학교 교사 경험이 겨우 3개월 보조교사가 다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봉사 좀 잘할걸,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이미 교사로 앉아 있었다. 말이 안 통해 그저 성경그림을 꺼내놓고 색칠하고, 준비해 간 말 몇 마디가 다였다. 성조가 틀리면 전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나는 뭔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내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가 생각나게 하셨다. 주일학교 교사경험은 없었지만, 주일학교 시절을 보낸 것이 기억났다.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내가 힘들어 하면 나를 위로해 주셨고, 어디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 곳이 바로 교회였다. 나는 주일학교 경험을 가진 것이 너무도 감사했다. 아이들에게 통하는 것 한가지가 있었다. 바로 함께 놀아주며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일이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만나러 동네를 돌았다. 일방적인 방문이 아닌 그냥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문이었다. 그러다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친해질 때까지 찾아 다닌다. 그리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교회로 초청했다. 어느덧 아이들에게 둘러 싸인 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들려주고 있었다. 문득문득 아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길 바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태권도 단기선교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해 주셨다. 태권도 단기선교사는 이렇게 지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지인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지 1년이 되었다. 약속한 시간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 가운데 더 있어 줄 것을 현지인들이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빨리 돌아오라는 가족들의 소리가 있어 갈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안에 예수님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더 연장해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시간이었다.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된 것이다. 한 아이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건 어떻게 생겨났지? 궁금증이 막 생겨나는 나이이니만큼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런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복음을 처음 들은 한 아이가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와 있잖아." 그 아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구나, 하나님을 아는구나. 자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줄 이제 아는구나. 우리의 사역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이어졌다. 안식년을 나올 때는 바로 그 말을 했던 아이와 함께 양육했던 5명의 아이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나올 수 있었다. 총책임을 맡긴 아이는 20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11살 때 만나서 3년이 지나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갔고, 모두가 검은 띠로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을 훈련하는 리더십으로 세우고 나올 수 있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잘 자라서 이 다음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간구한다.

한국에서도 빨리 돌아오라는 가족들의 소리가 있어 갈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는 그 밖에도 특수사역으로 출판사역을 했다. 태국어로 신학교 교재와 성경주

석, 기독교 서적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런데 나는 이전에도 출판에 관련된 일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 여기에 관련된 은사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인터넷도 모르고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 상태였다. 책은 나와야 하고 표지는 만들어야 하고, 외부에 맡길 만한 재정은 안되고, 결국 컴퓨터를 사고 포토샵 책을 펼쳐 들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일을 시작해서야… 아마도 이것이 선교지였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컴퓨터를 열었는데 서류가 가방으로 들어가고,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 이렇게 신기할 때가! 이런 나의 컴퓨터 수준이었다.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설명서가 있다. 나는 한번도 그것들을 열어보는 일이 없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을 사용한다. 그 이상의 기능들이 있어도 모른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이해가 될까? 그런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꺼버리고 다시 켠다. 순서에 따라서 끄는 방법도 몰랐기에 그렇게 몇 차례 하자 컴퓨터는 더 이상 내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새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고치기를 몇 번. 그런 내게 어떤 분이 100번은 더 들고 다녀야 컴퓨터를 알 거라고 말씀하실 때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표지를 디자인 한다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나의 하루는 예측불가였다. 자고 깨면 하는 일이 컴퓨터와의 씨름이었기에, 새벽에도 눌려서 일어난다. 날짜는 다가오고. 다행히 머리에서는 멋진 표지가 연상이 되어지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것들을 만들어 낼 만한 실력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믿거나 말거나다. 어느 날 그렇게 씨름을 하던 나는 그림을 포토샵에서 워드로 옮겼는데 내가 마음에 그리고 있던 모양이 되었다. Dpi가 높은 그림을 워드로 옮기니까 그림이 크게 확대되면서 내가 원했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럴수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는 그렇게 처음 표지를 만들게 되었다. 그 책은 바로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 졌어요.' 라는 책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구령의 열정' 이었다. 여전히 자신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컴퓨터 기능을 잘 몰랐던 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도구 창마다 다 열어서 변화하는 걸 체크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그렇게 일일이 다 들어가다가 실수로 어떤 키를 눌렀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온 것이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다니! 내가 만들어 놓고도 어찌나 감동이 되는지, 서점마다 다니며 책을 배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책이 두 권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전문가가 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 책 내용을 보내면 표지를 만들어 줄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내가 그렇게 두 권을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줄 지체들을 붙여 주셨다. 한국에는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현지에서도 전문가는 있지만, 재정이 많이 들어서 결국 우리가 한국에서 단기선교사를 받아 현지인을 훈련시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 일들이 진행되기 전에 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였던 것이다. 나는 그때 당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런 재주도 재능도 없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급한 대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 일에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안식년을 나오면서는 모든 일을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사역을 잘 이양하고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은 현지인들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선교훈련을 받으며,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제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헌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선교에 대한 마음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저를 드리는 일 외에는 제가

-계속-

컴퓨터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꺼버리고 다시 켠다. 순서에 따라서 끄는 방법도 몰랐기에 그렇게 몇 차례 하자 컴퓨터는 더 이상 내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게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교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나는 선교지로 드디어 보내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급한 대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는 실제로 현지인들을 돕기보다는 내가 만들어지고 훈련되는 일이 더 컸다는 것을 느낀다.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란 것은 나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안식년을 이곳 월드미션대학교로 인도해 주시고 공부시켜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한참 부족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셨다. 공부하면서 영육간에 건강해진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을 드리게 된다. 그리고 또 한번의 기적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향해 선교지로 향한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역시 일선이라는 긴박감이 있어서 일까? 하나님은 나의 기대와 생각 저 밖에서 역사를 보여준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제대로 더 준비되어서 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 시간이 다가왔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나가는 두 번째 터 사역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한다. 오직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길을 떠난다.

바로 내가 태양인이야 / 편집부

노창수 M. Div

노창수 학우의 글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에 대해) 중에서 성격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이며 남을 많이 존중해 주며 남을 존경해 주는 습관이 있고 불편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는 태음인의 특징을 읽을 때는 내가 혹 태음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태음인 이길 희망하지만, 매우 쾌활하고 사교적이고 봉사를 잘하며 호기심과 추진력이 좋고 매사 도전을 잘 하는 소양인의 특징을 읽을 때는 내가 소양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한다. 또한 내성적인 성격에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큰 일을 두려워 엄두를 못 낼 때는 난 소음인이 아니겠지 하며 외면하고 싶고, 1000명에 한 명 나온다는 태양인을 읽을 때면 그래, 바로 내가 태양인이야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나는 어떤 체질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올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각기 다른 DNA를 갖게 하셨고 어떤 부분은 비슷하게 어떤 부분은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한의학 상으로 태음인이든 태양인이든 간에, 내가 DNA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창조의 목적" 이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아주 커야 하고 아주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한 지체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연합의 의미를 생각하고 싶다.

몇 주 전 한국에서 있었던 조직신학자 대회를 참관하면서 서로 다른 교단과 다른 신학교에서 오신 60여 교수님들의 논문 발표와 토론의 장을 보면서 그 분들의 연합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우리의 사역의 터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연합이 아닌가 생각하고 글을 보내주신 노창수 학우께 감사한다.

콜로라도 단기선교 / 김 영준 BA

김영준 BA

콜로라도까지 가는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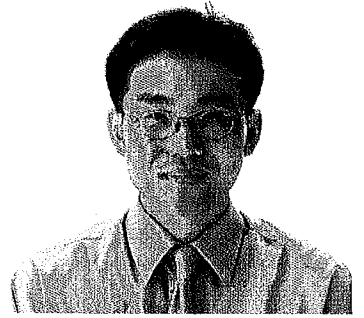
콜로라도로 가기 위해 우리 단기선교 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서 한 팀은 비행기로 다른 한 팀은 자동차로 이동을 하였다. 필자는 자동차 팀에 합류하였다. 총 20명 중에서 자동차로 이동한 인원은 모두 14명. 나머지 6명은 비행기를 타고 나중에 도착하였다. 차량은 오순용 집사님 댁의 RV 한대와 학교 밴 한대를 이용하였다. 대략 20시간 정도를 차로 운전해야 하는 긴 여행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 번도 이런 장거리 여행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나긴 여정 길에 올랐다. 처음에는 먼 길을 가야 하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으나 길을 따라 변해가는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가는 동안 같이 여행하는 학우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각자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뿌듯한 벅찬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권면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하늘나라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분 좋은 상상을 해 보았다. 아마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나는 믿는다. 마음을 열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 각기 다른 삶의 모습과 환경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가지 은혜와 한 가지 신앙을 나누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답던지…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물 속에 고백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 나누며 이동하는 중에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기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였다. 우리 모두는 달리는 찬양 대원들이 되어서 찬송하며 그 길을 갔다. 원컨대 우리의 찬양이 달리던 길을 따라 뿌려져 열매를 맺기를,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곳곳에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콜로라도에서의 건축사역

7월 5일 오후, 콜로라도에 도착해서 윤경호 목사님을 만났다. 인자한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 주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가슴이 훈훈해 지는 것을 느꼈다. 도착하자마자 교회로 향했다. 오는 동안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시작하려는 단기 선교 일정이 주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 드렸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자신들의 사택을 우리에게 숙소로 제공해 주셔서 그곳에 짐을 풀고 그날 하루를 여독을 풀며 다음 날 있을 건축 사역을 준비하였다. 다음날 아침부터 교회 건축 사역이 시작되었다. 크게는 교회 지붕 수리, 보일러 옮기기, 교회 파킹랏 작업, 화장실 설치, 교회 옆 담장 설치의 작업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각의 작업들에 자원함으로 일을 감당하였다. 자매 분들도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열심을 다해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자매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서 도움을 바라지 않았었는데, 자매 분들이 자원해서 일을 거들고 나자 일의 진척 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졌다. 아마도 자매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간 내에 일들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첫날 교회 지붕 수리를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화장실과 보일러 작업, 교회 파킹랏 작업, 그리고 교회 담장 작업을 시작하였다. 같이 동행한 학우분 중에서 남상길 집사님께서 기술자로 화장실, 보일러 작업을 주도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곳곳에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계속-

>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산 제사가 바로 이런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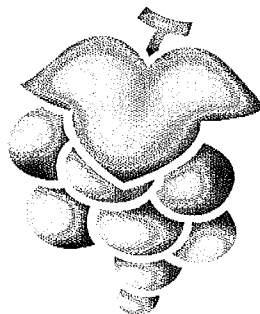
많아서 무척 애를 쓰셨다. 다른 작업들은 어느 정도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었지만 화장실과 보일러 작업은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어서 결국 돌아오는 주일 오전까지 일을 해서야 겨우 마칠 수 있었다. 그때까지 남집사님은 밥도 걸러가면서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그 일에 매달려 계실 때도 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거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다들 죄송한 마음을 안고 숙소로 먼저 돌아와 쉴 때도 남 집사님과 그 분을 돕는 두 서너 분의 집사님들은 일을 하셔야만 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세상의 일이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유로 휴식도 잊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애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는 저런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 제사임을 생각하게 한 귀한 시간이었다. 교회에 앉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산 제사가 바로 이런 것이리라. 나는 교회 건축 사역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에 아름답고 기쁘던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우리 대부분은 건축에 문외한들이었지만, 우리 손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우리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에서 흘린 우리의 땀방울들이 결실을 맺어 그곳 교회가 하나님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그곳을 통해 사방으로 뻗어나가기를 소원한다.

콜로라도에서의 연합 찬양 집회

콜로라도 단기선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연합 찬양 집회였다. 연합 찬양 집회는 어른과 청소년으로 나뉘어서 열렸는데, 어른 찬양 집회는 6일과 9일, 그리고 청소년 찬양 집회는 8일과 9일에 각각 나뉘어서 열렸다. 단기선교를 오기 전부터 찬양팀이 청소년 팀과 어른 팀으로 나뉘어서 준비를 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찬양 집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특별히 어른 찬양 팀의 일원으로 임하면서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었다. 윤경호 목사님 교회에서 열린 어른 찬양 집회 첫날도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임하게 되어서 무척 긴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갔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마음이 안정되면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곳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가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7월 8일 금요일 오전 건축 사역을 마치고 오후에 청소년 찬양 집회에 참석하였다. 건축 사역이 끝나고 예정보다 늦게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뜨거운 찬양의 열기로 예배당이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과 같이 뛰며 손뼉 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린 후 이어진 John Park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찌그러진 $100 짜리 지폐로 예증하면서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각인 시켰다. 이 말씀이 미국에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통 받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생각하니 너무 너무 기뻤고 은혜스러웠다. 비단 이 세상을 사는 모든 크리스챤들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 7월 9일 토요일에는 어른 찬양 집회와 청소년 찬양 집회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 어른 찬양 집회를 위해 리허설을 가졌다.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 찬양 팀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을 맡기면서 그 시간을 위해 기도 드렸다. 그리고 시작된 찬양 예배, 나는 무언가 따스한 기운이 우리 모두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안에 부담감과 긴장은 봄볕에 눈이 녹듯이 사라지고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를 자유함과 기쁨이 가슴 가득 샘솟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악기를 비롯한 모든 소리들이 더 없이 아름다울 수 없게 내 귀에 들려오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와 한 가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연습 부족으로 자책할 필요도 없었으며 긴장감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나는 그렇게 온전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임성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보지 말고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이길 수 밖에 없는 싸움. 이미 이긴 싸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어른 연합 찬양 집회를 마치고 우리는 청소년 찬양 집회로 향했다. 아직 집회가 끝나지 않았었다. 도착해 보니 설교 말씀 시간이 지나고 찬양이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자유함으로 성령 안에서 뛰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내 영혼이 그렇게 자유할 수 없었다. 넘치는 기쁨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 몸으로 찬양을 드렸다. 아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다. 그 중에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저들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손길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의 찬양 사역을 통해 그곳 콜로라도 지역에 아이들과 어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이기를 또한 소원한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돌아오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콜로라도 동양 선교교회에서 드린 후 LA로 출발하였다. 그곳 성도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그 동안 정들었던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떠나오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셨다. 비록 우리의 손길이 보잘것 없이 작은 것이었을 지라도 어린 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떡 다섯 개를 통해 오천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는다.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린다.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를 자유함과 기쁨이 가슴 가득 샘솟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콜로라도 단기선교 / 오 순용 BA

단기선교 팀이 처음 일차 모임을 가졌던 3월 8일 나의 마음은 솔직히 어수선하였으며 불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더욱이 이번 선교 목적이 예배당 수리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원과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염려를 우리의 바자회를 통해 깨우쳐 주셨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바자회를 통해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셨을 때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하셨다. 우리의 기도모임이 회를 거듭할수록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파송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 커다란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 이번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날짜만을 기다렸다.

7월 4일 새벽 5시에 학교 주차장에서 모인 선교팀은 모두 14명, 두 대의 차에 모두 나누어 타고 김대성 집사님이 운영하는 Coffee shop으로 가서 아침을 빵으로 해결하고 집사님의 부인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LA에서 Colorado Springs까지 1200여 마일의 긴 여행을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12시간 이상을 운전하여 Utah주를 거쳐 드디어 Colorado 주에 들어서니 우리들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탄성을 내질렀다. "아!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저마다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에 사로잡혔으리라. 우리는 저녁 7시쯤 되어 Rest Area로 들어가 숯불을 지피고 준비해간 갈비를 구워 모두 든든히 저녁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여 12시가 다되어 임성진 목사님께서 자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시어 경치 좋은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실은 깜깜하여 아무 것도 안보이므로 순전히 짐작으로 자리를 잡았음) 우리는 깜깜한 중에도 텐트 두 개를 치고 남자들은 텐트에서 여자들은 차에서 자기로 했다. 임성진 목사님은 RV차에서 자라고 하시니 코를 많이 골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혼자서 미니밴에서 주무신다고 하며 가셨다. 그 곳은 유난히 모기가 많아 무척 걱정이 앞섰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주의를 살펴보니 주의가 호수로 둘러 쌓인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침을 먹은 후 우리일행을 평안히 쉴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출발하였다.

7월 5일 그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목적지까지 약400마일을 남겨두고 있었다. 70Fwy를 따라 계속 동쪽 방향으로 가면서 콜로라도 강을 따라 계속 산으로 올라가면서 있는 마을은 무척 아름다웠다. 온천장과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보이는 산과 계곡들, 우리는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계곡 물에서 잠시 쉬기로 하였다. 차에서 내려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얼음물처럼 차서 오래 물 속에 있을 수가 없었다. 올려다 보이는 산 위에는 그 때까지 하얀 눈이 보였고 그 눈 녹은 물이 바로 이 계곡 물이라는 것을 안 순간 LA에선 여간 해서 맛보기 힘든 것이리라. 계곡 물에서 어린아이들처럼 놀다가 아쉬움을 안고 출발하였다. 오후 2시쯤 Colorado Springs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서 목회하시는 윤경호 목사님을 만나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하면서 그 어떤 알지 못할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그 순간 우리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힘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 드렸다.

7월 6일 아침 6시에 모두 모여 QT시간이 끝나고 대원 모두는 나와 한 집사님에게 아픈 몸을 치유케 해달라는 안수기도를 드리고 사역현장으로 출발하였다. 사역 첫 날, 지붕을 수리하는 사역이었다. 목사님과 함께 남자대원들이 지붕에 올라가 일을 시작하였다. 목사님은 나와 한 집사님에게 몸이 아프니 쉬라고 하셨지만 모두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새 힘을 얻었으니 염려 마시라고 말씀드린 후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나 남자들만 일하니 진도가 무척 더디었다. 얼마 후에 보니 여자 대원 중에 전금자 집사님을 선두로 자매들이 모두 지붕으로 올라왔다. 우리들은 위험하니 자매들은 내려가라고 했지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남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하는데 남자들의 두 배를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모두 구슬땀을 흘리며 오늘 하루에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붕수리를 오후 4시경 모두 끝마칠 수 있었다. 나는 일을 끝내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오전에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몸의 아픔도 조금씩 힘이 솟아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했던 나의 잘못을 회개하였다. 우리는 시간을 쪼개어 저녁 찬양집회를 준비하였고 수요일 저녁예배에 찬양을 드리면서 선교지에서만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

7월 7일 아침 6시 QT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교회 잔디밭을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역이었다. 곡갱이와 부삽으로 밭을 파 들어갔지만 땅은 무정하게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 중장비가 동원된 것이다. 임양택 전도사님이 서툰 솜씨로 중장비를 몰고 마당을 왔다갔다해서 땅이 잘 파졌다. 해지기 전에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나의 의심은 믿음이 적은 탓이었을까? 또 다른 한 팀은 교회 담을 쌓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 반장 남상길 집사님은 드디어 제일 힘들고 어려운 하수도 작업을 하러 지하실에 기어 들어가신다. 어느 분의 표현으로는 남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 들어간 로마의 지하감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오후가 되자 비행기로 오는 팀이 합류하였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땀을 흘리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7월 8일 QT시간에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또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 있을 저녁 청소년 찬양집회에 성령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였다. 밤 12시가 넘게 주익성 집사님과 둘이 지하 감방(?)에서 흙먼지와 악취를 맡아 가면서 하수도를 만들기 위해 전전 긍긍하였다.

7월 9일 노미애 집사와 나는 저녁에 있을 연합 찬양집회를 준비를 위해 연습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였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 일행의 몸과 영혼에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을 하면서 다치고 부어 오른 손목과 손가락으로는 기타를 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서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일면서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저녁 찬양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였다. 임성진 목사님의 강한 말씀의 선포와 결단의 시간들을 가졌다. 예배를 마친 그 늦은 시간에도 다른 분들은 그때까지도 교회보수 공사에 여념이 없었다. 왠지 죄인 된 심정으로 일을 도왔지만 새벽 1시가까이 되었는데도 일이 끝나지가 않았다.

7월 10일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마치고 떠나야 되는 날이다. 아침 6시경에 교회를 출발하였다. 일행은 서둘러 남은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급함을 아셨는지 예배시간에 맞추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와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예배 후 교인들이 준비한 갈비를 점심으로 대접 받았다. 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진실된 마음들을 목도하게 된다. 프리웨이 입구까지 따라오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두 분의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돌아오는 길… 몸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나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피곤한 나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다. 넓고 탁 트인 길을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왠지 가슴이 뜨거워 졌다.

하나님! 아무 쓸모도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만 생각한 나에게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것 감사 드립니다. 모든 사역 위에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작업 반장
남상길 집사님은
드디어 제일 힘들고
어려운
하수도 작업을 하러
지하실에…,

거리선교 1 / 거리선교회

월드미션학생회
기타 중창단의
찬양이 거리 선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월드미션 학생회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한 첫 거리 선교일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림 없을 시간인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5시 40분쯤에 집을 나와서 학교에 도착해 보니 6시 15분이었습니다. '혹시 이 시각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착해 보니 이미 몇몇 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감격…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를 학교에 주차하고 나와 보니 벌써 다른 분들도 속속 도착하고 계셨습니다. 다들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모두가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또 한번 감격하였습니다.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시 25분 - 출발을 앞두고 오늘 있을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이 90%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비가. 캘리포니아가 태풍의 영향권아래로 들어서는 시점이어서 처음부터 오늘의 거리 선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모임 장소로 오는 동안에도 비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를 나가는 한 시간만이라도 비를 멈추어 달라고, 그래서 좋은 일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홈리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크고 충만하신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도록, 뭇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를 위해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6시 50분 - 목적지인 San Pedro길과 6th 길이 만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선교 현장 속에서 혹 있을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날씨를 위해서, 그리고 거리선교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7시 - 거리 선교회의 이은주 전도사님 일행을 만나서 곧바로 거리선교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옷이 젖지 않을 정도의 안개비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점점 그치더니 비가 멎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듦과 동시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월드 미션 학생회 기타 중창단의 찬양이 거리 선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동안 매주 모여 연습했던 찬양 곡들을 모아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듣는 이들 모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7시 15분 - 찬양이 끝나고 이은주 전도사님(거리 선교회)의 짧은 설교 후에 음식을 나누어 주는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동안, 기타 중창단은 찬양으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며 홈리스들 한 분, 한 분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7시 50분 - 이렇게 해서 짧았지만 뜻 깊었던 거리 선교 행사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며 이은주 전도사님의 거리 선교회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8시 - 우리는 학교에 다시 모여서 오늘 있었던 거리 선교에 대한 소감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그 동안 막연하게만 여겼던 선교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고백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무서워하고 피했던 홈리스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비록 준비는 엉성했고 짧은 시간이어서 여러 가지로 미흡했지만,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고 참여하였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품는 고결한 그 일을 위해 오늘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선교활동을 위한 조언들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 현장에서 각자 맡아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분담하자는 것과, 미리 찬양곡들이나 전도지, 혹은 선교에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알려주고 나누어 주어서 미리 숙지하고 선교 사역에 임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욱 보완하고 준비하여서 다음에 있을 선교 사역 때는 더 효과적으로 모두가 혼선 없이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흡했지만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손길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열매들로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리선교 2 / 거리선교회

새벽 4시 30분 - 집을 나섰다. 비록 미리 광고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였지만 막상 예정일이 되자 너무나 준비가 미흡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서별 준비 모임의 시간도 가지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행사 일정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참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다들 각자 맡은 사역지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것을 알기에 종용은 하지 못했지만 내심 아쉬운 마음은 없지 않았었다. 손진락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 증거를 부탁 드렸지만 행사를 주최한 학생회가 여러 가지로 목사님을 모시고 행사를 갖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보시기에도 얼마나 송구스럽던지…

새벽 5시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것 같다. 학교 파킹랏 문이 열리지 않아서 차를 학교 파킹랏 입구에 세워두고 있는데, 오순용 집사님과 노미애 집사님이 오셨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솔선 수범하시는 집사님 내외를 뵈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차 안에서 종이와 볼펜을 꺼내서 제2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푯말을 차 뒤에 걸어 두었다. 그러자 오광탁 전도사님이 나에게 다가왔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신 채로 학교 앞 차도에 차를 대고 주무셨다고 한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나오신 전도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었다. 거기에다가 오 전도사님은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것이어서 더욱 감동이 되었다. 아침에 병원 Appointment도 있어서 같이 행사 참여를 못하실 텐데도 새벽에 음식 만들고 나르는 일을 도와주시러 나오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오 전도사님의 헌신에 많은 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는다.

새벽 5시 30분 전금자 집사님, 최자란 선교사님, 이육림 집사님이 오셨다. 전금자 집사님이 전날 미리 재어 놓으신 고기를 불에 굽고 밥을 짓는 일에 모두가 매달렸다. 150명이 먹을 분량의 고기와 음식 재료를 준비해 주신 전금자 집사님의 노고를 생각할 때, 늘 무거운 짐만 드리는 것 같은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가슴 한켠에서 전집사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늘 궂은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없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전금자 집사님을 보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임을 느낀다. 그리고 모두들 음식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며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공허하게 하였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계속-

주최: 거리 선교회

시간: 6:20~ 8:00

장소: LA 다운타운 San Pedro & 6th St.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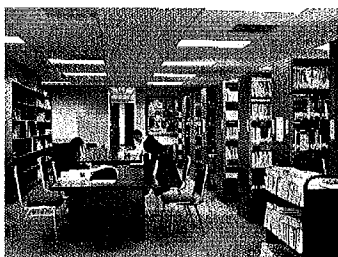
귀하고 소중한 시간과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강하시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후 12:9-10)

새벽 6시 45분 - 주익성 집사님이 오셨다.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우리는 차에 올랐다. 이제 그들을 보러 가야 한다. 그들에게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사명 맡은 우리가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아침 7시 - Downtown에 도착했다. 거리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모여서 오늘의 행사를 위해 같이 기도를 하였다. 손진락 교수님이 오셨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작은 자를 찾아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오순용 집사님과 노미애 집사님께서 찬양을, 전금자 집사님과 최자란 선교사님은 식사 배식을, 다른 분들은 전도를 맡아서 우리의 이웃을 섬겼다. 가슴이 뿌듯하다. 나처럼 무익하고 약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저들에게도 가감 없이 전해져서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열매로 저들의 삶 속에서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침 8시 - 모든 행사를 마치고 김수철 목사님의 거리선교회 일원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오늘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찍혀 있으리라 웃음지어 본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오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다. 오늘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귀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 모든 학우들과 손진락 목사님, 거리 선교회, 그리고 오늘 거리 선교에 참석한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조은아침선교회 / 채 규태 BA

"하나님 말씀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는 이웃을 먼데서 찾으려고 애쓴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몸을 쉴만한 잠 자리도 없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하는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고자 처음 2005년 3월, 집 주변의 5-6명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2005년 5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토요일 음식을 제공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 딛게 되었습니다." (조은 아침 선교회 "한인타운 홈리스 봉사 사역 개요 및 내역서" 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채규태 학우와 그의 부인 유영씨가 설립한 비영리 선교단체인 '조은아침 선교회'는 타운 내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꿈과 비전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은 아침 선교회' 의 앞으로의 비전은 홈리스들에게 그들이 의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인종과 언어에 의한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함께 각종 사회 활동(교육, 언어, 인터넷, 기술, 미용, 요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조은 아침 선교회' 는 2005년 5월부터 매주 2회, 수요일과 토요일에 40-5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새벽 5시부터 타운 내 노숙자들을 찾아가 음식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우비와 점퍼, 이불, 야외용 매트리스, 양말 등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타운 내, 더 많은 소외되고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조은 아침 선교회' 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KYU TAI CHAE
3325 WILSHIRE BLVD
STE. 1245
LOS ANGELES, CA 90010
T) 213-388-9514
F) 213-388-1996
C) 213-820-0082

홈리스와 함께

새 시대를 이끌어 갈 기독교 일꾼을 양성하는 월드미션대학교

그 숲에서 / 이 인미 BA

그 숲에서 나는
2월에 우는 새의 갈망과
함께 흔들려 주는 잎새의 예민한 배려와
까실해진 입술에 입 맞추는
따스한 햇살,
부끄럼없이 몸을 여는
나무의 늙은 속살을
이해한다.

그 숲에서 나는
햇살이 새겨놓고 간 지문을 읽으며
해아래 만물이 꿈틀거리는 하나의 몸짓을 느낀다.
예사롭지 않은,
죽은 듯 살아있어

서로의 상처를 매만지며
그 상처에 포개어
생명을 나누는
주기 위해 꽃 피우고 열매 맺어 가는
침묵의 향연

그 숲에서 나는 스스로 매단
종이장식을 하나 둘 거두어 낸 하늘을 본다
그 하늘이 내려오는 것을
가만히
아주 가만히…

기도문 / 이 기영 BA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16년 전 주님의 뜻이 있어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를 세우시고
그 동안 많은 주의 종들을 키우시며 사용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의 학교가 새로운 마음으로 2010이란 비전을 품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이제 저의 학생들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학교가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는 미션 로드가 되게 하시고
이 길을 지나가는 발자국 모두가
세상 구석 구석까지 누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학생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몸과 마음을 다해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저희가 진정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새긴 사랑을 저희가 세상을 향해 베풀게 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뜻에 맡겼듯이
저희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곳에서 주님 알기를 갈망하는 학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갈급함과 추구함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영(靈)지(知)덕(德)체(體)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사역현장에서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후원하여 주시는 사랑의 손길과 기도 후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이 두루두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년 전 세상 구원을 향한 뜻이 있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십칠 년 전 월드미션 대학을 세상에 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연습 / 임 중혁 BA

임중혁 BA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지은이: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 1611-91)

프랑스 로레인 지방 니콜라스 헤르만가에서 출생, 잠시 동안의 운동선수, 군인생활 이후 파리의 갈멜 수도회에 들어가 평생을 평신도 수도사로서 생활, 특히 하나님과의 긴밀한 동행과 그로 인한 담백한 성품으로 널리 알려진다.

오래된 소책자....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상하게 책 제목이 눈에 들어 왔다. 임재 연습이라니...

'연습'이라는 말이 강하게 다가왔다. 임재를 연습한다니!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한 호기심과 나의 삶의 비전선언문과도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책 속의 글과 생각들-

"우리는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사소한 기도들에 매달려 살아간다. 그나마 그 기도들은 쉬지 않고 변덕을 부린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다."

로렌스 형제는 자신이 죄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절대로 놀라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나인걸.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지" 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하나님께 애걸하거나 변명하는 법이 없이 그저 단순히 자신의 죄를 그분께 자백했다. 그리고 나서는 몸에 밴 그 사랑과 경배의 행위를 (하나님의 임재 연습)다시금 평화롭게 재개할 수 있었다.

오직 한가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최악의 시련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하여 포기하는 작업이다.

영혼이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내어버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세상적인 자아를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충성심을 하나님께 더 잘 내어 보여 드릴 수 있는 길은 없다.

진지한 씨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의 임재가운데 견고히 붙어 있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

첫째; 하나님을 그분 본래의 마땅한 자세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영(Spirit)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도 신령으로(in spirit)드려지는 것이라야 한다. 그것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 진다.)

둘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를 우리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과의 연합- 나의 구원/우리의 구원

하나님과의 가장 완전한 연합은 실제 하나님의 임재이다. 만일 의지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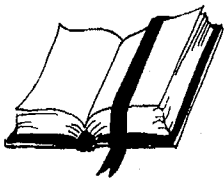
1. 첫 번째 단계: 새 생명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2.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임재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
3. 영혼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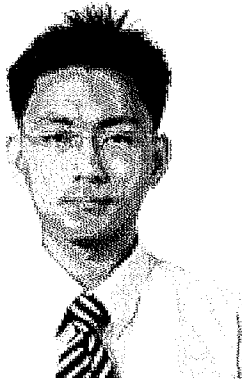
마음(생명의 근원이요 몸의 다른 모든 지체들을 지배하는)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요 끝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영적, 육체적 행동들의 시작이요 끝이다. 더 넓게 말하면 마음은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인 것이다.

4. 이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의 말들, 예컨대,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등과 같은 말들을 고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나님께 시선을 못박아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만 한다.

5. 임재 연습은 처음에는 지속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신실하게 연습이 되고 나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영향력을 구사하게 된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 부어지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순전하고 사랑에 찬 시선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수월하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의 태도이다.

하나님 임재연습의 축복들
영혼의 믿음이 언제 어디를 막론하고 훨씬 더 생생해지며 더욱 적극적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해준다. 우리의 의지에 거룩한 사랑의 불을 질러 우리로 세상에서 분리된다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과 점점 친숙 해져가는 것을 경험한다.
****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나의 기도들이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부끄러워진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같이 나가는 새벽기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가장 고민하는 바는 기도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 세계의 싸움에 대한 것이다. 아.. 이건 정말 거창하게 말해서 영적 싸움이지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가 되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들을 맞는다.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개를 흔드는 일.. 그것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절규들... 나는 온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씨름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로렌스 형제도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절치부심한 시절을 보냈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 수 있다면 삼으려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면 받는 것이다. 경건도 연습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하나님께 ..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시간들이 잃어 버리는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
지금 사고하는 이 간에도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고백한다.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임재 연습의 시작이다.

내가 가장 고민하는 바는 기도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 세계의 싸움에 대한 것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03:1-5)

하나님! 저 무슨 훈련 중이에요? / 권 은석 M.Div

권은석 M. Div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과 기억을

가족과의 만남으로

달래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 1:10)

나의 가능성 훈련

2001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라는 땅, 그 많은 도시 중에서도 LA, 수많은 타운 중에서 작은 Korea Town,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 참으로 1998년만이라도 "해외에 간다"라는 개념은 내 사전에 생각조차 없었다. 대학 3년 2학기부터 한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뒤늦게 깨달은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과 복음 전함의 가치는 겨울, 여름 방학을 온전히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가족과 교회의 전적인 기도와 재정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나와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멀게만 느껴졌던 단어가 바로 "선교" 이다. 교회, 신앙, 믿음, 봉사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나에게 "전도" 와 "선교" 는 바람처럼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Driving 하고 있었다. 95년 잠실 주경기장에서 있었던 GCOWE 세계선교전략회의 집회의 도전과 2000년 선교 한국 집회, 3번의 단기 선교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고정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 부모님의 그 표정, 반응을 나는 잊을 수 없다. 4년제 편입을 앞두고, 대학교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지속되고, 부모님의 교회에 출석, 봉사자로만 기대했던 작은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 목회를 하겠다" 니 가정 모두의 눈빛은 "No" 라는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성하고 담 쌓고 살았던 저에게 교회 회중 예배에 기타 가지고 선 모습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패기로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임원, 찬양팀 리더, 기감청년 회장으로 총대는 다 매고 있으니 가히 빈 껍데기만 요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5-10명에서 힘들게 기초(Foundation) 다지기 했던 섬겼던 모 교회의 청년부가 미국에 온 후 현재 30여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2005년 여름 중국 단기 선교 후 3년 반 만에 찾은 모 교회와 가족, 친척, 친구와의 만남은 어느덧, 시간의 바늘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아직, 가족과 친구, 친척들에 대한 나의 기억은 3-4년 전으로 멈춰 있기에 어느덧, 많이 늙어버리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친척들의 소식은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다.

리더의 기초 다지기 훈련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과 기억을 가족과의 만남으로 달래며, 잊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좇아 LAX에 3번째 밟게 하셨다. (비자 연장 1년) 한국에 한 달 남짓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본 학교의 2005년 가을 학기가 한 주 연장이 됨으로 오랜만에 가족과 결혼한 누님의 가정의 생일을 같이 기뻐할 수 있었다. 가족의 애경사에 4년 만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 기쁨은 나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3살 된 조카 은비를 보면서, 한번은 유산의 고통과 슬픔 속에 주신 매형 가정의 기쁨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또한, 비자 인터뷰 시 영사관이 영어가 왜 이리 안 늘었는지? 물었을 때 난감한 나의 심경과 미국에서의 생활은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선교 훈련 받았다고 말해도 이해 못 할 것이고, 개인 영적 침체가 되었다고 말해도 영사관이 이해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가히, 군대에서 경험한 가족과의 떨어짐으로 오는 고독이나 외로움보다 더 깊은 더 넓게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 내면의 깊은 바다, 수렁에서 2003년 11월 기쁨의 소식과 만남의 축복이 찾아 온 것이다. 한 학기 미국 학교에서 공부 한 후 중도하차하고 그렇게 사역지를 구하고 찾고 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낙망하고 있었다. 그 시기가 1년 이상이었고, 재정 확보를 위해 주유소에 밤 시간 일(11:00PM-7:00 AM)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 나는 LA의 밤 문화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내가 사역지 구하는 것을 내려 놓고, 묵묵히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주님이 시키고 계셨던 것이다. 2002

년 성경적 내적 치유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8:16)

만남 훈련

내면 세계의 깊은 갈등과 다듬어 지지 않는 마음의 정원 관리 등은 Up & Down이 심한 영적 생활로 이르게 만들었고, 이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 이르렀다. 내 힘, 경험, 인맥이 끊어지고서야 주님이 나에게 팔을 내 미셨다. 그 작은 만남! 나를 위해 1년 이상 룸메이트 전도사는 나를 좋은 사역자로 추천하고 있었다고 뒤늦게 들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포기, 나의 절망, 나의 인생의 제로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깨달았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은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이었다. 신학교도 휴학 중인 나에게 하나님은 광야 생활 훈련에 오아시스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셨던 것이다.(이사야 43:19)

만남의 강을 예비하셔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의 삶이 해석되지 않았던 그 기간이 내적 치유와 말씀 묵상과 긍정적 자아상 회복과의 만남을 통해 재해석, 즉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고민, 내적 궁핍을 해결 해주지 못했다. 매달 지출되어지는 재정적 압박은 부모님, 친구, 동역자들 역시 한국에 있기에 나를 도울 수 는 없었다. 그 어려움의 시기를 묵묵히 십자가 걸으신 어린 양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다. 앞으로 더 큰 위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문제, 파도를 넘는 지혜를 조금 깨달았기에 이제는 영적 자긍심으로 이길 확신이 들었다. 인턴쉽으로 쓰임받고 있을 때 그렇게 풀타임 사역하시는 분이 비뚤어진 마음으로 부러워 보였습니다. 비록, 위치는 인턴쉽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풀타임)으로서 원했기에 풀타임 사역자 생활이 정확히는 몰랐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지혜의 부족으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때로는 잠시지만, 방송국에서 엔지니어로 섬길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실수, 흠, 내 안의 들보로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못 끼친 것 등은 내 안의 미성숙함을 깨닫게 해 주셨고,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깊고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사막, 광야 학교를 통해 리더십의 중요성, 자기 관리, 말씀 묵상, 영적 침체 진단과 극복, 지혜에 대한 균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평생 학습, 평생 교육이 훈련, 습관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은 귀한 만남을 주셔서 이 귀한 월드미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다시 열어 주셨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3번의 이사를 2-3달 사이에 하면서 작은 부르짖음을 금요일 청년 모임 후 밤에 하면서 여름 단기 선교를 사모하며 준비하면서, 금요 철야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1시간 기도하면 바닥이 드러났다. 감사하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의지를 들이고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 여름 단기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신실하게 채우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헌신 훈련

2000년도 선교의 해로 드렸고, 2005년도 내 나이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나이이기에 다시 믿음의 진보를 위해 구 헌신이 아닌 재 헌신을 드렸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생활을 하면서, 학비, 생활비 등의 재정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다. 2005년 여름 단기 선교 후 다시 미국에 온 후 2번째 교회 사역지를 기도하면서 청사진도 그려보았다. 졸업하기 전까지, 큰 교회(인원, 재정 기준)에서 배우자는 내심 굳은 결심이었지만, 다시 미국에 온 저에게는 2-3주 열심히 이곳 저곳 뛰어 보기도 했지만, 낙담과 좌절을 겪었다. 제2의 광야 학교인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사막 코스인가? 아닐까 두렵기도 하고 섭

-계속-

3번의 이사를
2-3달 사이에
하면서
작은 부르짖음을
금요일
청년 모임 후 밤에 …,

기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심 가운데 대부분의 모든 기도 제목과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와의 만남도 허락 해 주셨다.

일본에 존경하는 선교 분야 멘토이신 김안신 선교사님이 나에게 충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너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것임을 명심하라" 고 하셨다. 또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빌2:13-14) 말씀으로 교회 사역 위치 옮길 때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 조언들을 해 주셨다. 목회, 선교사로 헌신한 저에게 "당신의 목회지,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왠 지 선교사, 목회의 부르심과 헌신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듯 내 영혼에게 다가왔다. 그 때에도 선교사님은 "네가 어딜 가는 것이 일찍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든 필요한 시기에 쓰실 것이라고 격려 하시면서 자기 개발에 중요성과 지금 사는 삶의 자세의 진실성을 말해 주셨다. 그리고, 젊어서 고민, 고생, 갈등을 많이 경험과 선교 및 신학 훈련을 쌓도록 권면하셨다. 나는 어디쯤 서 있는 지 카운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기도와 정성껏 준비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오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비록 넘어질지라도 열정적인 도전을 쉬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훈련 받았던 단계들을 신명기 말씀 묵상을 통해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Everything 단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Nothing 단계, 하나님과 만난 이후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Something 단계를 배우며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오늘 나에게 하루의 삶 속에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Why not the best?" 이 질문으로 하루를 뒤돌아보며 최선을 다했는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한다.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한 리더의 영혼 관리이기 때문이다. 나를 뒤돌아보는 훈련을 통해 내일의 삶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나에게 하루의 삶 속에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23:10)

나를 아시는 주님을… / 박 표강 BA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알기 전 아니 내가 있기 전 태초부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심에 얼마나 많은 감격으로 구름 위를 걷게 하셨는지...

그 황홀함으로 존귀히 여김 받는 자의 자존감이 한껏 높아 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우리 공주의3살 생일에 기쁜 축하 파티가 있었고 며칠 후 뇌종양의 증세를 보였으며 석 달 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세 살배기 딸을 '이제 내가 거둬가마' 하시고 천국으로 옮기 우신 그 참뜻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심을 미루어 알뿐이다. 주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를 얻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그 병상에서도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해결하시고 채림에게 고통이 없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채림은 너무나 똑똑해서 모두들 남다르게 생각했다. 특히 언어에 타고난 재능을 주셔서 15개월 때부터 의사소통을 언어로 표현했던 아이라 별명이 대외적으로는 talk baby, 말하는 인형. 똑순이 등이고 집에서는 예뻐공주, 뽀뽀리공주, 예삐, 똥강생이 그리고 엉덩이에 몽고반점 때문에 파랑 궁뎅이 라고 부르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다. 이렇

게 자존감을 높게 하시고 말 잘하게 하시고 총기 있게 하시고 당당하고, 밝게 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받게끔 예쁜 행동을 하게 하신 것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랑과 교감을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채림이 우리 곁에 있을 동안 그런 채림의 달란트로 늘 흐뭇하고 자랑스러워서 아이 잘 키운 부모가 된 듯 내 힘인 듯, 내 공로인 듯,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다. 모두가 주님의 것이었는데...

채림은 주님을 너무나 좋아했다. 주님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기뻐하며 본받기 원했다. 마지막 날도 예배는 3번이 드려졌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가운데 마지막 찬양이 드려지자 천국에 입했고 예수님께 십일조를 드리듯 3년 3개월을 살다 너무나 천사처럼 예쁜 모습으로 갔다. 찬양을 즐겼고 (어른들이 좋아할만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수 사랑하심은, 오 신실하신 주, 너 근심걱정 말아라 등 셀 수 없지만...)성경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기 좋아했고 성경인물들을 좋아했다. 기도를 언제나 참으로 진지하게 드렸고 언제나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도요청을 하던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던 아기 천사였다. 채림은 온전한 주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너무나 사랑했다. 꽃, 나무, 열매, 돌멩이 작은 모래알까지도 사랑하며 아꼈다. 지나는 길에 작은 생물이 또는 작은 풀꽃이 있어도 고사리 손으로 쓰다듬으며 "잘 자라라" 하고 뽀뽀 쪽 해주던 아기천사. 뽀뽀리 공주였다.

채림이 누구 딸? 하면 하나님 딸! 하면서 언제나 제일먼저 하나님을 외치던 채림을 통해 서열2위로 밀려난 것이 믿음 좋은 딸을 둠으로 인해 은근히 기뻤었는데 그 주권을 이리도 빨리 행사하실 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심이 감사하다. 그러나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리움이 심해 그것을 내 의지로 꾹꾹 누르느라 가슴이 멍들었다. 깊은 한숨을 누르고, 흐느낌을 누르고, 눈물을 누르고, 그리운 마음을 눌렀다. 곳곳에서 채림이 느껴진다. 채림의 손을 상상하며 만져본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작고 예쁜 손. 채림의 발을 상상하며 만져본다. 말랑말랑 올망졸망 귀여운 발가락들, 통통한 발등과 발바닥. 간지럼을 타며 깔깔대던 귀여운 채림의 얼굴을 더듬어본다. 초롱초롱 예쁜 눈, 자기 눈을 들여다보며 별님 달님도 있어! 하며 외치던 예뻐, 향기에 아주 민감했던 조그만 귀여운 코, 똑소리 나게 예쁜 입. 어떤 말도 놓치지 않고 잘 듣던 예민한 귀. 안아주기를 좋아했던 조그만 팔. 젓가락이며 가위사용을 섬세하게 잘했던 손가락들. 아장아장 귀엽고 통통한 다리. 파랑궁뎅이 예뻐공주가 사무치게 그리워 채림의 베개를 안아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을 얻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하며 기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채림을 그 좋아하는 예수님 품에 맡겨두었으니 맘 놓고 주의 일 할 수 있어 좋고 채림은 그렇게 그리던 예수님 품에 안기어 그 끼를 맘껏 발산하며 좋아하던 찬양가운데 거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쁜 옷을 입으면 "아빠, 엄마! 사람들이 나 너무 예뻐서 기절하면 어쩌지?" 하며 깔깔거리던 예뻐공주가 "천국에서 모두들 나 예쁘다고 난리네?" 하며 그 좋은 천국 분위기를 더 좋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쁜 상상을 해본다.

채림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를 받았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어린 선교사로 그 소임을 너무나 기쁘게 감당하고 천국으로 입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땅의 부모 된 나는 그 아름다운 천국 소망이 있어 감사하고 그 나라에 부르심을 입기까지 엇길로 가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신 그날 '잘했다 충성된 자여' 하며 꼭 안아 주실 때. 나 또한 미적대거나 겸연쩍거나 서먹하지 않고 '주님~!!' 하고 외치며 한번에 달려가 와락 안기며 기뻐 포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며 기대한다.

영광스런 천국 입성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십일조를 드리듯 3년 3개월을 살다 너무나 천사처럼 예쁜 모습으로 갔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며 / 유 동근 선교사

"목사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안 나둔다" 고 공갈을 쳤고 목사님은 더 이상 저희 집에 …,

1961년 한국 서해안과 가까운 인천에서 2남 7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누님들만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하시고 저를 낳으셨답니다.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기도원시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으시니까 누님들이 달을 보면서 "달님 달님 우리 엄마 아들 낳게 해 주세요.~" 했다고도 합니다. 저의 집은 부유하였고 아주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엄했지만 아버지는 아주 친절하시고 자상하셨습니다. 회사 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위해 집에 그릇마다 물을 길어 놓으셨고 겨울철 누님들이 학교 갈 때는 신발을 아궁이에서 따뜻하게 해서 나오는 누님들마다 신겨 주셨습니다. 심지어 개가 새끼를 낳아도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에서 십원 짜리 지폐를 바꾸어 두었다가 우리가 교회 갈 때 항상 그 돈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회사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 두시게 되었고 우연히 알게 된 교회 장로님과 퇴직금 전부를 투자해서 동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 무렵에 아버님께서는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신 후 기도원에서 사시다시피 했고 우리 형제들은 결혼한 누님들 집에 흩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약 일 년 후 돌아 가셨고 장로님과 하던 사업은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두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던 누님들은 버스 차비가 없어 울고 불구 했고 중학교에 다니던 저는 떡볶이 하나 사먹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암울한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시절 저를 향한 어머니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셨던지 중학생 때부터 저를 선교단체에 보내 성경공부를 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추운 한 겨울에도 새벽기도를 빠짐없이 나가셨고 힘들 때 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줄이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암울한 사춘기를 겪으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 장로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급기야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모든 교회 활동을 그만 두었고 다니던 고등학교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성격과 입은 거칠어졌고 집에 목사님이 심방 오시는 것까지 못 마땅하여 "목사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안 나둔다" 고 공갈을 쳤고 목사님은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다가 1980년 부마사태가 일어나 계엄 상태에서 술을 먹고 여관집 주인의 코뼈를 부러뜨려 삼청교육대를 갈 뻔도 하였습니다.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하고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어머니는 타락한 아들 더 버린다고 해병대 입대를 강력 반대 하셨고 주위에 사람들이 덩달아 반대 했지만 소신이 오기로 발전한 저는 결국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생활하면서는 휴가 때는 타군들 돈도 뺏고 담배도 뺏으며 술집에 들어가 없는 돈에 술 마시고 깽판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간다는 고참들이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구타도 잘하고 외출 외박 후 음담패설도 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전에 가졌던 '신은 죽었다.' 는 결론을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기간 동안 악당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잡으면 끝장을 보지 않고서는 몽둥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병장이 되어서는 졸병들에게 종교 활동을 금지 시켰습니다. "내 밑으로 종교 활동하면 다 때려 죽인다." 는 말에 불교 가톨릭 기독교신자 아무도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싫어서 아무도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얻어 맞는 게 무서워 종교 활동을 못하고 있는 후임 병들을 보며 "정말 신은 죽었다." 는 생각을 더 확고히 가졌습

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은 것을 믿으면 내가 죽인다고 해도 교회는 가야지" 하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병 중에 한 명이 "유 해병님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내겠습니다. 교회는 보내 주십시오." 했다. 나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게 덜 맞아서 죽고 싶구나." 하는 생각과 "얘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병을 교회 보내 주었습니다. 우유와 빵을 사오는 조건으로...

하루는 군종 장교가 왜 후임 해병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느냐고 말하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나는 웃기지 말라" 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웃긴 것은 "해병대가 한번 죽지 두 번 죽냐?"며 죽음을 우습게 여기며 군 생활을 하던 제가 목사님의 말씀 이후부터는 죽음이 겁이 나서 말년 훈련도 다 열외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는 그 말이 항상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그 후임 해병이 저녁마다 제 옆에 와서 기타를 치며 유행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J 스치는 바람에 J 그대 모습 그리며.' 어느 날은 열심히 부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정신이 돌아온 것은 그 곡이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부르시며 마지막 손을 저으시던 곡이었기 때문에 곡조를 깨닫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눈에 고인 눈물을 손으로 닦다 가였습니다. 기타를 그만 치게 하고는 마음이 더 심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곡을 거기서, 그 해병을 통해 부르게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병들을 종교 활동 안 시키려고 일요일 마다 당직근무를 섰는데 한 주일은 저녁에 군종 장교 분으로부터 "교회에 오라."는 말을 듣고 "괜찮다."고 했으나 군목의 강권에 할 수 없이 일요일 즐겨 보던 '쑈쑈쑈' 프로그램을 뒤로하고 교회를 갔다. 교회까지 혼자 가는 것이 심심해 졸병 한 명을 종교 작업원으로 데리고 교회를 갔다. 그날은 사단 군종 참모님께서 행22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다. "동근아 동근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 때 제 귓가에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며 그 동안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이 한 순간에 제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없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며, 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고 괴롭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네 몸에 한 부분이라도 다친 곳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처럼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부대에 가서 졸병들을 그만 때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 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새 제 눈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제 가슴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군 분위기에 안 맞게 말년 병장이 후임 병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고 부대에 돌아왔지만 제 감정을 건드리는 후임 병의 말투에 후임 병을 가차 없이 구타하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깨고 후임 병을 구타한 것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연속 줄담배를 피우다가 불침번을 부르자 불침번은 "다 깨울까요." 하며 긴장을 하고 있었다. "저 악당을 건드렸으니 오늘 다 죽었다." 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해병대 그 시절 분위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었다. 후임 병을 불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사과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후임 병은 어리둥절하여 자기가 잘못했다고 계속 말했지만 저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고 단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나는 웃기지 말라" 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제 일 앞장서서 졸병들 술 먹이고 노래 부르던 악당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자 아무도 술을 마시지 못하고 분위기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임 병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후임 병들에게 파티를 마음껏 하도록 안심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레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주임상사 분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담배부터 배웠다." 고 할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웠고 술 냄새나는 곳에 제 이름이 빠지기 힘들었었는데 그것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대 날 집에 와서 보니 어머니가 구완와사로 입이 돌아가 누워 계신 모습으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고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온 것과 그 험한 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방황하는 7년을 한결 같이 아침에는 금식기도, 저녁에는 철야기도로 울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 아래 L.A에서 유동근 선교사가

아이들의 웃음 / 김 제홍 BA

김제홍 BA

아이들과 보자기를 둘러매고 수퍼맨 놀이를 하며 눈구경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하얀 종이를 …,

오늘도 어김없이 제일 일찍 오는 정현이를 맞으며 하루가 시작된다. 나의 Job은 아이들의 골목대장 왕초 '선생' 이다. 우리 유치원에는 한 살에서 네 살 아이들이 모여서 지내고 있다. 나의 어려서 꿈이 어린이 선교사역과 보모였는데 그 꿈을 이루며 날마다 아이들과 뒹굴며 지낸다.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와 같이 놀아 주며 재미 있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며 보모의 역할은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 선교사역이라는 나의 어릴 적 꿈은 또 다시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가 싶었다.

그런데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아이에게 날마다 차를 타고 다니시며 각국 나라 언어 CD를 들려주며 어려서 들은 것들이 커가며 성인이 되어 그것을 들을 때에는 어렴풋이 생각나며 금방 모든 것을 습득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도 '그래 지금 비록 아이들이 어리다 하며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겠다. 이곳을 나의 선교사역지로 삼자하며 날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뱃속 10달 태교가 10년을 좌우하며 3살 이전의 교육이 평생을 지도한다는 어느 책에서의 글이 생각 났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으며 주기도문도 2살 반 된 아이들은 암기를 하고 성경구절도 많이 들 외우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아이들과 지내는 나의 하루하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고 행복하다. 아이들과 해 맑은 웃음과 친구와 다투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돌아서서 웃고 뛰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 간다고 하셨나 보다. 아이들은 왕초인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고 따른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낮아짐과 겸손을 또한 배우기도 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과 보자기를 둘러매고 수퍼맨 놀이를 하며 눈(snow) 구경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하얀 종이를 찢어 눈이라며 뿌려주고 아이들이 엄마가 되고, 내가 아이 되어 소꿉놀이를 하며 지내는 나의 일과는 마냥 기쁘고 즐겁다.

어린이 신앙교육 일생을 좌우한다 / 여 현정 BA

무서운 태아 학살 명령이 떨어진 위험한 시기에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모세가 태어났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일 뿐 그 사랑스럽고 준수한 용모의 아들이 죽음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들은 육신적 아들의 정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숨겨두고 키우려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석 달 만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믿음으로 하수에 띄워 보냈다.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건져냄을 받자마자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라던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누이의 지혜로움으로 다시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자라게 된다. 젖을 뗄 때까지 불과 3-4년 정도 어머니 품에서 자랐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의 양자로 애굽 궁전에 들어가 왕궁의 법도에 따라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호화롭게 자랐을 것이다. 조용히 왕궁에서 머물며 살았다면 그는 평생 풍성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이 애굽사람 들에게 고통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자기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24-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았을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과 문화를 배우고 자란 년 수에 비하면 어머니 품에서 자란 것은 불과 5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을 뿐이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다양한 태아 교육이 강조되지만 믿음의 부모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 좋은 태아 교육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3-4년 후면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방 문화와 관습과 우상 숭배 속에서 자라게 될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히브리 민족임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이다. 젖먹이는 시간도 노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 짧은 기간의 어린 시절의 교육이었지만 애굽의 훌륭하다는 문화와 교육을 다 받고 자란 것에 물들지 않은 것을 보면 어릴 적 신앙 교육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양육할 것을 말씀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문제 더 나아가 청년들과 장년의 문제는 어릴 적 신앙 교육의 결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고 말씀 하신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 이라고 어린이 전도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셨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멋진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 요셉도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을 불러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삼아 주셨다. 어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이방 민족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 하였다. 어린 디모데도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 아래서 믿음으로 자라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다. 태아부터 시작해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야 말로 그들의 일생을 좌우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목표와 꿈을 갖고 자라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해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어 지리라 확신한다.

어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

사랑의 학교 / 이 강천 BA

월드미션 신학교로

전학하여

첫 번째

느낀 점은…,

개혁주의 신학교를 잠시 다니다가, 복음주의 신학교인 월드미션 신학교로 전학하여 첫 번째 느낀 점은, 월드미션신학교가 사랑이 많은 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학교에나 학풍이 있기 마련인데, 월드미션의 학풍을 말해 보라면, 저는 단연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수님들이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83세 노교수님인 임동선 총장님은 독특했습니다. 그분께 설교학을 배우며 수업에서보다 그분의 인격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청기가 울리거나 기침을 하시면 꼭, "용서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는 이해하세요, 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총장님은 항상 "용서하세요."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실수를 해서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총장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얼른, "용서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틈에 총장님의 가르침이 몸에 밴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대방은 저의 겸손한 자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금방 화해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용서하세요." 라는 말의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생기면 어정쩡하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월드미션 신학교에서 배운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심히 총장님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성진 교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물론, 본인 마음은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학생들보다 더욱 고개를 숙이십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임 교수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앞으로 더욱 고개를 숙이실 텐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지실까요? 그래도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이근철 교수님께 종교철학을 배웠던 시간은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철학이 무엇인지 본질에 근접해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다니는 사람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왜 푸른 신호등이 켜지면 지나가는가 하고 묻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종교철학 시간은 처음에 그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간쯤부터 본질적인 물음들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독특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수업은 시간이 짧아 아쉬웠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수업을 한 학기쯤 배정해서 깊숙이 공부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의 이슈들이니까요. 철학에 관심을 갖게 해주신 교수님의 교수법에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을 앞둔 올해에야 저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선묵 교수님의 시니어 세미나를 통해서입니다. 세계관이란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비로소 세계관이 무엇인지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세계관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신론자였습니다. 33세 때에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교 시절에 읽기 시작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서적들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시절 눈이 시리도록 읽었던 세계 문학과, 고전이라 불리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수상록들, 그리고 장 폴 싸르트르, 알베르트 까뮈, 칼 야스퍼스 등 실존주의 문학·철학가들의 소설들과 글들, 허무주의 문학가인 헤르만 헤세, 유신론과 결별한 니체,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서들, 헤겔의 역사 철학, 그리고 프로이드와 칼 융, 에리히 프롬에 이르러 다다른 곳은 무신론이었고 이성주의였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더듬어보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부딪치게 될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손진락 교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수업은 교수님의 성실함이 돋보인 수업입니다. 교수님의 성실함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일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교수님의 성실함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수업이 흥미로웠습니다. 작년에 철학개론과 종교철학을 배운 데다, 올해 기독교 세계사와 교회사를 함께 배우게 되어 철학적인 바탕이 세워진 곳에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까지의 현대 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월드미션신학교의 커리큘럼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영성은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겠지만, 대학인만큼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목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랑스런 모습을 빼놓고 이 글을 마친다면 이 글은 절반의 완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 초에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우님들의 빛나는 얼굴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고 힘들더라도 동료 학우들과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학우들입니다. 존경하는 학우님들이 있어 힘들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이오의 집' 이라는 식당을 운영해 장학금을 주시겠다던 소망을 품으셨던, 먼저 소천하신 구문회 장로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서적이 많은 도서관을 만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월드미션 도서관을 그 동안 읽지 못했던 문학 서적들을 보충해서 읽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필립얀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사랑과 영성, 그리고 지성이 더욱 자라나는 월드미션신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업을 들으며 현재 앉아 있는 이 의자는 누구의 돈으로 이 자리에 놓였을까를 늘 생각했습니다.
어느 분의 어떤 소중한 돈이었을까?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월드미션신학교를 돕게 되었을까?
나는 이 의자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이 의자에 앉아 있는가?
이런 점들을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미션 신학교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영성,
그리고 지성이
더욱 자라나는
월드미션신학교가
되기를…,

사슴의 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내 몸에 한 채의 성전을 지으리니

당신의 말씀을 심기 위해
나는 입술을 비우리니

길하고 지친 목마름에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한 번만,
오늘도 한 번만

긴 그리움의 목을 내민
내 영혼에 당신의 숨결 채우소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는 은 나팔이 되리니
– "당신은 나의 시" 중에서 / 이인미 –

파리의 누님 / 김 양숙 M.Div

얼마 전 본국에서 방영하는 '파리의 연인'에 파리가 나온다고 해서 망설임 없이 파리의 연인을 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보고 들어보는 불어! 세느강, 그곳을 지나는 유람선, 에펠탑과 개선문이 스쳐 지나가고, 어느 곳을 잘라서 액자를 만들어도 그대로가 멋있는 그림이 되는 도시! 낙엽이 뒹구는 그 멋있던 공원과 바바리 코트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파리지엔들! 주인공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간 물랭루즈! 그때와 다름없는 자리 배치, 여전한 캉캉춤!- 물론 댄서들은 바뀌었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나는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던 해 가을, 회사의 배려로 파리를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Yes!"라고 대답했고, 가족들의 불평과 불만을 뒤로한 채 파리행 비행기로 몸을 실었다. 얼마나 가고 싶던 곳이었는가? 중학교 시절부터 배우고 싶은 언어 1위 '불어'(오죽하면 영문 전공으로 들어갔다 불어로 전공을 바꾸었겠는가!), 가고 싶은 도시 1위 '파리'....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chance를 놓칠 수 있단 말인가!

여전한 캉캉춤!

물론 댄서들은 바뀌었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나는

예전의 기억들을

떠 올렸다.

아무튼 파리에 도착해서 일을 끝낸 후 남은 시간 동안 관광을 하기 위해 가이드를 구했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려 몇 군데 관광을 끝내고 해산을 하니, 날도 환하고 무료해, 몇 사람이 어울려 에펠탑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갈아탄 끝에 도착한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파리의 야경! 특히 에펠탑 바로 옆에 자리잡은 나폴레옹의 무덤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저절로 감탄이 벌어졌는데...

다음날 관광을 하려고 다시 모였을 때, 나이가 있으신 어떤 여자 분이 "저어, 에펠탑 옆의 호텔은 하룻밤에 얼마나 하나요?"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웬 호텔?' "무슨 호텔이요? 전 호텔 못 봤는데요?" "아, 거기 바로 옆에 휘황찬란한 호텔 있었잖아요? 호텔 앵발리드인가? 하는 거..." "... 우하하하! 그건 저도 나폴레옹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긴 1873년 이래로 나폴레옹의 전용 숙소거든요. 후후후..."

우리나라에선 '호텔'하면 숙박시설을 연상하지만, 불어에서의 "L'hotel"(로뗄르- 'h' 는 묵음, 'L' 은 남성형 정관사 'Le' 의 줄인 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엔 어디나 붙일 수가 있다.

어쨌든 그 일로 친해진 우리는 그날 관광이 끝난 후 물랭루즈에 내려 달라고 부탁을 해서 몇몇 사람이 캉캉춤을 보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불어를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택시 기사와 흥정을 하게 되었다. 파리의 지리를 잘 모르던 나는 에펠탑과 물랭루즈가 같은 선상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택시비를 깎아달라고, 어제는 얼마에 갔었는데, 왜 더 달라고 하느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기사는 그렇게는 못 간다고 하더니 다른 고객을 찾아 가버렸다.

공연이 끝나 사람들은 몰려 나오고, 택시는 거의가 예약제라 택시를 잡을 수 없어 그냥 그 가격을 주고 가야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돌아서는데, 그 기사가 "Venir! Venir!"(영어의 go동사 원형)라고 외치면서 내게로 오는 게 아닌가! 반가운 마음으로 그 택시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 길이 에펠탑에서 오는 길보다 많이 멀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기사에게 넉넉한 팁을 주었다.

이튿날 벨기에까지 가이드가 동행한다고 해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예의 그 아주머니가 가이드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 택시 기사가 우리를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싼 가격에 앞자리까지 태워주웠노라고 자랑을 했다.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는 택시 앞자리에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 헌데 '웬 누님?' 도저히 이해가 안되던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되뇌이며 "누님?"하는 순간 버스 안을 구를 뻔했다. "푸하하하!" 그건 '누님'이 아니라 'Venir'였다. 그 아주머니는 'Venir'를 '누님!'으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내 설명을 들은 버스 안은 웃음 바다가 되었고, 그 아주머니 말인즉 "하도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와서 누님이란 말을 배운 줄 알았지 뭐..."

참으로 즐거웠던 파리 여행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 참으로 정겨운 말, 파리에서의 '누님!' 이다.

Last Lesson / 정 연희 BA

내가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싶어서였다. 내가 학생으로서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을 직업적 혹은 습관적으로 전달해 주는 교수가 아닌, 내가 닮고 싶고, 나를 감격시키며,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슴속 성령의 불씨를 지펴 줄 뿐만 아니라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해 줄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교수를 만나고 싶었고 그런 분을 스승으로 갖고 싶었다.

삶의 체취에서 크리스천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그런 교수를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긁어도 긁어지지 않는 가려움처럼, 타탈로스 (맛있는 음식과 샘물을 두고도 영원한 갈증과 갈망 속에서 헤맨 자)처럼 나는 목말라 했다. 이렇게 여러 학기를 보내고 이제 B.A.로 정리하는 마지막 수업인 구약개론을 들으면서 여러 해 동안 목말랐던 내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를 맞고 있다. 처음엔 Syllabus외에 자꾸만 내주는 숙제 때문에 살짝 짜증이 나려 했지만(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유익한 것이었다) 지금은 오히려 개론이라서 좀더 깊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만 나를 맴돌 뿐이다. 무릇 무심히 내뱉는 말속에는 그 사람의 기질과 삶의 자세가 거울처럼 비쳐지는 법이라 했다. 교수님의 강의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늘 배어있고, 크리스천으로서의 결연한 삶의 태도를 강의 속에서 확고히 표명하신다. 늦은 시간에도 전혀 피곤한 내색 없는 또랑또랑한 모습은 후질근하게 피곤에 지쳐있는 학우들을 무색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막힘 없이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은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정성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려는 열정에 나는 늘 감사했으며, 그때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도리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자꾸만 자꾸만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다. 교수님은 내 심령을 날카롭게 헤집는 칼과 같은 예리함으로 찾아왔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강의들의 예상을 빗겨가는 교수님 특유의 style은 나를 미혹케 하는 매력이 있었으며, 크리스천의 체취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 모습에 나는 늘 감동되었다. 교수님과 그의 가르침은 내게 마지막 수업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의 삶을 인도해 주며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여운으로 머무를 것이다.

"나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무척이나 많이 울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크리스천의 체취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 모습에 나는…,

오늘은 몸에서 시계소리가 난다 을지로 시계 골목의 부속으로 잘 조립된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던 시계 시계 수리공이었던 아버지는 푹 패인 눈에 외눈돋보기를 끼고 떨어진 초침을 핀센트로 집어 사람들의 고장난 시간을 고쳐주셨다 나는 자신이 정한 시간 속에 나의 고장난 시간을 고치지 못하는 아버지가 늘 창피했다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는 을지로 시계골목의 좋은 부속으로 이쁜 시계를 만들어 주었다. 그럴수록 내가 안아야 할 시간은 늘어갔다 친구들은 단지 시계가 많은 나를 부러워하곤 했다 늙은 하인처럼 딸의 손목을 잡으시던 아버지 그동안 잠자던 기억의 태엽을 감으니 아버지의 잔기침소리가 난다 이제는 고장나지 않은 영원의 태엽을 감으며 딸의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려나

– "당신은 나의 시" 중에서 / 이 인미 –

이 아침에 / 지 명자 (이정재 , BA 학우 아내)

"가출' 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때문에…,

지난 주말, 나는 드디어 농부의 아내가 되었다. 누가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늘 "농부의 아내" 라고 말 했었는데 주일 오후, 교회에서 먼저 돌아온 남편이 뒷마당의 한 평 남짓 땅을 뒤엎고, 우리 가족은 그 좁은 땅에 오이, 고추, 호박, 토마토 등을 심고 키 큰 해바라기로 울타리를 쳤다. 공책만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씨앗이 잘 불어서 부풀어 올라 파란 움이 트고 태양은 따스한 햇빛을 공급하겠지. 그러면 그 놈들은 호박 잎사귀는 널찍하게, 고춧잎은 삐죽하게 자라나고 호박 잎엔 호박이, 토마토 줄기엔 토마토가, 해바라기 대롱에는 노어란 해바라기가 정직하게 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정직한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정직한 노동이 필요하다. 필요한 만큼의 물을 줘야 하고 햇빛을 쪼이게 해야 하고, 심지어 남편은 새가 새싹을 쪼을까봐 그물까지 쳐 줘야 했다. 옛 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는 말이 있다. 어릴 때는 근본이 좋아야 결과가 좋고, 부모가 좋아야 자식이 좋다는 말로 해석했지만 이제, 삶의 고개를 훌쩍 넘은 지금, 콩 심고 뼈 빠지게 고생해야 좋은 콩이 나고, 팥 심고 정성을 들여야 먹을 만 한 팥이 난다는 생각이다. 나의 화두는 언제나 "자식" 이다. 새싹이 돋아나 제일 잘 한 일이 예쁜 꽃이 아닌 튼실한 열매이듯이 사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건 "자식 양육" 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근본 보다는 성장 과정이 중요 하다는 건 훌륭하게 자란 입양아들이나 요즘 신드롬이 되어버린 풋볼 스타 '하인즈 워드' 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14살 때 소아마비를 앓던 소년으로 한국의 보육원에서 자라다 미국 가정에 입양되신 분이 있다. 그분은 지금NASA의 수석 연구원으로 성공한 한인으로 손꼽히는데, 자신이 어려서 양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딸 셋을 두고도 아들을 입양 해 잘 키우고 있고 "입양 부모회"를 설립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다. 그 분이 처음 "양아버지" 에게 들은 말은 "내 인생에 최고의 결정은 너의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고 그 다음은 너를 입양한 것이다." 라는 말 이었다. 그분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 하는 분도, 사랑하는 분도 "아버지" 라고 말씀 하신다. 저 먹을 것 타고 나는 게 자식이라지만 저 먹을 사랑은 부모가 주어야 한다. 이제 꼬물꼬물 올라온 호박 넝쿨을 생각하며 넝쿨 뻗기 쉽고, 햇빛 받기 쉽게 줄을 놓을 생각이다. 자식도 물주기 나름, 햇빛 주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호박 넝쿨도 줄을 놓아 주면 줄 따라 잘 뻗어 훌륭한 열매를 맺지만, 그냥 내 버려두면 이리 저리 엉키다가 시들고 만다. 아이들도 적당한 때 물을 주고 가지를 쳐 주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어디로 뻗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양 쪽 부모 중 한쪽이라도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면 아이들은 바로 자랄 것이다. 나도 사춘기 때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가출' 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때문에 마음을 돌린 적이 있다. 요즘 젊은 엄마들에게 '조기유학' 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엄마 치마폭에서 어리광 부릴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혼자 '미래'를 헤쳐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내 생각으론 자식농사에는 '유창한 영어' 보다는 몇 년간 부모 형제와 옹기종기 모여서 알콩달콩 사는 게 훨씬 좋은 '거름' 이 될 것 같다.

요즘 나의 기분이 가라 앉은걸 눈치 챈 남편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산타모니카까지 나갔다. 모처럼 맛있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해변을 걸었다. 평일, 이 시간에 데이트 하는 부부는 우리밖에 없을 거라 즐거워 하며… 평일에도 불구하고 해변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은 한눈에 봐도 홈리스 같은데 너무나 여유롭게 꼬질꼬질한 가방을 베개 삼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저런 복잡한 일들과 관계로 인해 하루인들 편할 날 없고 심지어 꿈속에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에서 저렇게 모두 벗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환경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저렇게 훌훌 벗어 던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고 더 나은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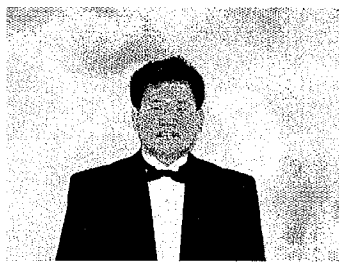
로 바꾸지 못해 삶은 점점 무거워져만 간다. 요즘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만 해도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벤츠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을 사립학교에 보내다 보니 경제적 압력은 더해 가고 결국은 삶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이들은 초막에 살아도 부모와 함께라면 행복하고, 사립학교에 안 가도 인생에 큰 차이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기만 하다. 현대의 부모들은 자식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육한다는 지적도 있듯이 꽃과 같이 가꾸고, 비바람 막아 주고, 좋은 것만 주다가 줄 것이 없어지면 가차 없이 뽑아 버리는 격이다. 아무리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태어남과 동시에 독립된 인격체이다. 태어남은 살아야 하는 권리와, 살아야만 하는 의무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식의 삶을 결정하고 응징한다.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도 죽는 것 보단 낫고 천애고아도 훌륭히 자랄 수 있다. 아니 훌륭하지 않아도 태어나 자라고 결혼해 자손을 퍼뜨리는 일 만으로도 사람의 기본 역할은 할 수 있다. 나의 어린 시절, 어머니는 오후만 되면 잘 마른 빨래를 대청마루에 쏟아놓고 개곤 하셨는데 어린 나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이불 귀퉁이를 잡고 어머니를 도와 드리곤 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힘이 모자라 어머니 쪽으로 끌려가며 깔깔대던 기억은 지금도 아름답게 남아있다. 초등학교 시절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도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표정도 살피며 그렇게 다독이고 서로 끌어안고 살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저질러 놓은 생활을 유지 하느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족이 얼굴 맞대고 대화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려워졌다. 지금부터라도 버리는 연습을 하고 싶다. 자동차도 버리고, 텔레비전도 버리고 세탁기도 버리고.. 버리지 못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가족간의 시간이 늘어나고 사랑과 이해도 늘어날 것만 같다. 살림살이가 기계화 되지 않던 시절에 사신 어른들이 '배부른 소리'라고 하실지 몰라도 나는 지금도 남편과 마주 앉아 빨래를 갤 때나 막내아들과 시금치를 다듬을 때가 제일 살 맛 나는 것 같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없어도 살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다 보면 정작 필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는다. 단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가족간의 사랑과 대화가 안타까울 뿐이다.

(2006년 4월 13일자 중앙일보 오피니언)

살림살이가 기계화 되지 않던 시절에 사신 어른들이 '배부를 소리'라고 하실지 몰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 줄 현악기와 거문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 시편92:1-4 -

몇 년 전 나는…, / 강 동완 BA/음악과

강동완 BA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는 개념 이라고 …,

몇 년 전 나는 섬기던 교회에서의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했었던 기간이 있었다.

믿음 생활에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 보다는 그저 막연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 하고 싶은 마음뿐 이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여 날마다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 하면서도 계속 힘들어만 가는 환경 앞에 뒤로 물러나고는 이것이 나의 한계 다라고 단정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믿음의 형제를 보내주시고 그 형제를 통해 다시 한 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의 필요성과 능력을 체험으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든 누구에게든지 꼭 도움이 되는 필요한 동역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이고, 또 기뻐하시는 존재이기에 그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World Mission 은 참 포근하고 따듯하다. 이것이 우리학교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까지 이러한 따듯함을 느꼈고 지금까지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학업을 할 수 있어 늘 감사한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맡은 직분은 다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일하면서 서로에게 받기보다는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동역이라는 사역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곳 미국에서는 화폐 감정사들을 채용하고 화폐 에 대한 훈련을 시킬 때에 꼭 가짜 돈 보다는 진짜 돈 만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진짜 돈에 대하여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가짜 돈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분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고 또 그 분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하며 이와 같이 되기 위함이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는 바른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

일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박사님은 편하게 살면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 갈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곳에서 일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때 그는 "그것은 편하게 앉아서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 몸을 던져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원하시고 지금 학교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훈련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적이 있다. '사랑한다' 와 '좋아한다' 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반대적인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양이가 쥐를 좋아한다고 말 할 수는 있어도 고양이가 쥐를 사랑 한다고 말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때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은 단지 그 쥐를 잡을 때 쥐가 찢겨지고 피가 나고 죽더라도 상대의 상처를 통해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므로 좋아한다는 의미가운데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며, 반면 우리들이나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향한 마음을 나타낼 때 사랑한다고 하지 좋아한

다는 표현은 쓰지를 않는다. 또 가령 자식이 부모 에게 똑같은 죄를 수십 번을 반복해서 짓는다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벌하기 보다는 뉘우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자식이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면 매번 기쁨으로 용서를 할 것이고 또 그 자식을 따듯하게 안아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할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 일 것이며, 이때의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는 개념 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World Mission 우리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 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또 그 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기쁨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의 참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실천하는 삶 바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여 내가 우선이 아닌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며 상대를 높여주고 격려 해주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들은 주어진 훈련과정이 끝나면 우리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영적 전쟁터로 실전 배치가 되어 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World Mission 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훈련을 받은 대로 각자의 사역지가 어디에 있던지 상호 협력 하고 서로의 사역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귀한 동역을 통하여 많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학교의 비전(vision)처럼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과 더불어 맡겨 주신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도 처음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듯이 우리학교에서 느꼈던 포근하고 따듯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똑 같이 전하여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우리학교의 비전(vision)처럼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과 더불어 맡겨 주신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출 세상 / 주 익성 BA

지금으로부터 이천 여 년 전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분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음성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은 먼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마저 포기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버려야할 것은 없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닌지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오늘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 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신체적 자유를 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 세상'을 하는 것은 신체적 구속, 즉 욕구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녕 사는 길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잠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은 최소한의 절제를 원합니다. 최소한의 절제는 남을 미

-계속-

주익성 BA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볼 때 항상 같은 얼굴이 아닙니다. 때로는 못생긴 것 같이 보여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누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부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잘 나가는 것에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살아 있는 나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릇을 만든 사람이 그 용도를 생각하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분의 필요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이래도 저래도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저만의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출 세상' 이며,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출 세상'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의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에게 질투하지 않는 것이 '출 세상' 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 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복음 전파도 이러한 '사랑' 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깨달을 때 '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 세상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월드미션이 '출 세상' 의 마지막 관문이며 하나님 나라의 첫 관문인 것은 우리 하기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As I grew up in a household..., / Yong Kim (BA)

As I grew up in a household, full of Christian fanatics, it was a difficult time in my life. Everything we did as a family revolved around God, Jesus, and the Church. We ate and slept God, throughout my youth. During my vacations from school, I wanted to spend time with my friends and go somewhere, but my family insisted that we spend time together. "God would want our family to be close and stick together," my uncle often said. He would want our bonds so tight that it will never be broken.

I felt a remarkable experience when I went to a Summer Retreat from OMC. I went to make my uncle happy and to reap the reward that was waiting for me once I got back from it. It was the second night of the retreat when I truly felt what it is like to be a Christian and the importance of being saved. There is a verse in the bible that says,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John 14:16-17

That night, I realized without a doubt in my mind that Jesus was my savior, who made the ultimate sacrifice for an invalid teenager like me. I expressed my gratitude with a very long prayer, praise, and constant sobering. I never knew a person can produce that much tears at one sitting. To make that special moment more meaningful, my sister and her boyfriend came up that night with telling me. It was a truly a great big surprise. This was a night that resides in me until this day. I often tell this story to many people who ask me, "When did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My story never changes because it's the truth and I'm very proud.

As much rebel as I was in my youth, Holy Spirit was always with me, just waiting for me to come out of my dormant stage and accept my true calling. If it wasn't for that night, I would not be here attending World Mission University and serving my church. I owe everything to God for His compassion and Jesus for sacrificing Himself for me that I may be here.

나의 고백 / 강 성래 M. Div

아주 추운 작년 11월 14일, 일본 도쿄 신주쿠 자택.. 심야.. 아내는 한 달 동안 집을 못 나올 정도로 몸이 심하게 아팠다. 삼십 년 동안 무당 딸로 자란 아내는 왠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7년 전 마지막 숨 쉬는 때에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소천(召天) 하셨다. 그 후 아내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두려움 속에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 그러던 작년 겨울, 아내는 아주 심하게 몸이 아팠고 그 후 갑자기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났다.

어머님을 통해 마귀도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내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영적으로 강하다는 목사님을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며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아내는 매일 새벽제단을 쌓으며 열심히 기도했고 이러한 아내와 함께하는 나 또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 하지 않은 채 우리 부부는 이곳 L.A.에 오게 되었다. 아내는 69년도에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왔기 때문에 이곳 L.A.가 일본 도쿄보다 편한 것 같았다. 원래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는 자기 성격대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만져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압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해 주곤 하였다.

'말씀' 도 없이 베푼 그 사랑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다. 9년 동안 앓고 누워있었던 사람이 일어났고 다리 관절염도 고쳐 주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고혈압도 낫게 해 버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9가지 약을 먹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병 고침의 은사는 잠잠해 버렸다.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한 행위를 은사로 믿고 있던 아내는 병 고침을 통해 너무나도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도 컸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조용히 기도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믿음의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주시는 것 같다. 그 다음 그들을 만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연단이 시작된다. 인간은 극히 교만하여서 단 1초간의 마귀의 속삭임에도 넘어가기 쉽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만져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럴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피조물이기에 자신이 부숴지기를 거부하고 죽기를 거부하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생각을 못하는 죄성 때문에 성령의 터치하심을 막고 있다. 그런데 이 막힌 길을 뚫기 위한 방법으로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를 접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충만이란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선로에 성령의 열차가 달리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만지시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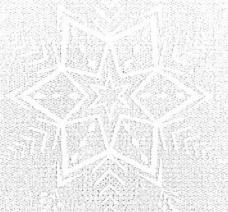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 감사하는 비결도 알아가고 있고 때론 이해하기 힘든 하늘나라의 Password도 하나님께 질문을 통하여 조금씩 배우고 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쌓는 과정이 얼마나 험한 길일까? 영의 문은 언제 활짝 열리며 아버지와의 대화는 언제 자유로이 나눌 수 있을까?

일본말이 훨씬 편한 나 같은 제일교포 3세라도 토박이 학생들하고 평등하게 신학을 배우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선물인 사랑을 품으면서 내 아내와 함께 배우고 함께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고백한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이고 빛이며 삶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강성래 학우와 아내

너무나도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도 컸다.

캠퍼스 커플 / 이 현일 BA

캠퍼스 커플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커플링, 커플 티셔츠, 낭만, 젊음 등 밝고 아름답고 가슴 설레는 관계가 생각나지요? 누가 우리 캠퍼스에 그런 분이 계실까요? 네, 저희 부부입니다. 어머, 저기 음악과에서 두리번거리는 젊은 분 말고요. 저기 학생회에서 반짝 반짝 일하시는 분이 저희 남편 이구요 우아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는 사람이 저랍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시겠다고요? GUESS!! 많은 학우님들이 저희 부부를 부러워하더군요. 같이 공부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여보, 내 꺼 보여줄까?" 그러면 학구적인(?) 우리 남편은 …,

그러나 처음 2년간은 남편 혼자 다녔어요. 첫1년은 나이 들어 공부하느라 애쓰는 남편이 대견스럽고(?) 안쓰러워 그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것이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그런데 2년째부터 큰애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시간이 생겨서 그런지 남편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어요.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일하고, 끝나자 마자 학교에 가서 밤 11시30분쯤 들어오는데 그 때부터 숙제를 해야 한다고 컴퓨터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부터 제가 투정을 부립니다. "여~보야, 노~올자"

"숙제하고"

"무슨 숙제 하는데?"

"가정사역"

"그럼 한 번 실습해 보자. 와이프한테 A학점 못 맞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래, C학점을 받더라도 우리 가정사역하자" 하면서 숙제를 미룹니다. 문화 인류학 숙제라 하면 문화충격 테스트해 보자고 조르고, 커뮤니케이션 숙제라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떼를 써서, 숙제를 제 시간에 내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스트레스1호가 되어 버렸고, 그러면서 남편이 제게 같이 학교에 다니자고 권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새삼스레 어떤 특정한 틀에 매여 공부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겨울 특강에 청강을 하려다, 강의를 들어보니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어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같이 학교에 다니니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관심도 같아져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숙제 할 시간이 없으면 제가 초조해 집니다.

"여보, 내 꺼 보여줄까?" 그러면 학구적인(?) 우리 남편은 "아니, 내가 공부해야 알아지니까 괜찮아." "그럼 적당히 써서 내,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 시간에 끝내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 그럼 이 번엔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 데 제 시간에 내고 나중에 보충을 하자" 하면서 완벽주의를 잠시 내려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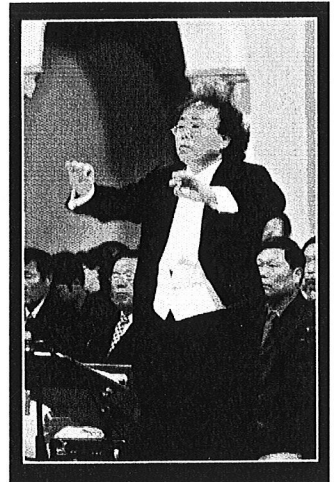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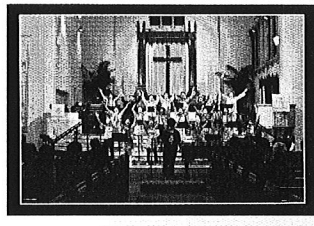
어느 교수님이 내조를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한다고 격려를 해 주셨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아직도 나는 남편에게 투정 부리고, 떼를 써 남편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사역지를 향해 가는 남편을 보다 넓은 마음으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더운 심장 한 조각 떼어
하얀 눈물로 포장하리라
말보다 승한 꿈결 같은 시선
네 고운 가슴에 놓으리라

네게 주고 싶은 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피로 맺은 약속의 한 피붙이 사랑
사랑한다

– "당신은 나의 시" 중에서 / 이인미

월드미션대학교 콰이어 제2회 정기공연

월드미션대학 콰이어(WMU Choir: 지휘자 윤임상교수)는 지난5월 22일, 23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제 2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22일 오후 8시 LA 윌셔연합감리교회, 23일 오후 7시30분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29일 오후 7시30분 샌디에고 한빛교회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에는 평소 월드미션대학교를 아끼며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차원 높은 음악을 감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월드미션대학교 콰이어는 작년 음악과 윤임상 교수를 중심으로 성악과 지휘, 기악 등 음악전공자 20여명이 모여 창단됐으며, 그 동안 여러 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레퍼터리의 음악을 선사해 왔다. "이번 연주회는 아름다운 소리에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 청중들에게 보고, 듣는 즐거움을 주며 극적인 상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예견한 윤임상 교수의 말대로, 월드미션대학교 콰이어는 이번 정기공연에서 '페스티벌 테 듐'(작곡 벤자민 브리튼)과 '조셉 앤 어메이징 테크닉컬러 드림코트'(작곡 AL 웨버, 팀 라이스)를 비롯해 '반딧불 미사'(작곡 박지훈) 등을 연주하였으며 핸드벨, 반딧불 펜, 타악기 등을 사용, 조명과 함께 특별한 효과도 보여줌으로써 정기 공연을 관람한 청중들을 새롭고도 신선한 음악으로 사로잡았다. 이번 정기공연을 통해 더욱 입지를 굳힌 월드미션대학교 콰이어의 활발한 활약상을 기대해본다.

윤임상 교수

개교기념 학술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4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학생헌신 예배시간에 본당에서 개교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독교인과 시너지 경영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세미나의 강사로는 남가주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 (포모나) 경영학 교수이며, 동 대학 산업경영 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진형기 박사가 초빙되었다. 진형기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최근 미국 기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경적 경영 마인드를 설명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시너지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한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들은 유익한 정보를 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학생헌신 및 선교팀 파송예배

지난 5월 5일 (금) 오후 7시에 동양선교교회에서 2006년도 학생헌신 및 단기선교팀 파송예배가 개최되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사역을 알리고 여름방학 동안 단기선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후원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헌신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 가졌다. 이날 본교 총장님이신 임동선 목사님께서 "거짓 종과 참 종"이란 주제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이어서 단기선교팀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들의 헌신을 표현하였다.

봄학기 설교대회

지난 5월 2일 (화) 학생예배시간에 본당에서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도 봄학기 설교대회가 열렸다. 설교주제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였고 약 10분 가량의 설교를 하는 것이었는데,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서상민, 이기영 학우가 공동 최우수상을, 강명석 학우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이번 설교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학우들이 도전을 받고 참여함으로써, 배운 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는 발판으로 삼는 기회가 모든 학우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월드미션 가족야유회

지난 5월13일 (토요일)에 그리피스 공원에서 월드미션대학교 가족야유회가 있었다. 학기말 시험을 마지막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갖게 된 이번 야유회에는 그 동안 학업에 정진하느라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월드미션대학교 학우들과 그 가족들 및 교직원들에게는 모처럼 만에 야외에서 보낸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날 학우들은 각자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들면서, 그 동안 못 나눈 대화도 정겹게 나누었으며, 푸짐한 상품이 준비된 다양한 게임도 하였다.

봄학기 유아교육과 수료식, 집중영어프로그램 종강

지난 5월 11일(목) 본교 채플에서 2006년도 봄학기 유아교육과 수료식이 있었다. 올 봄학기에는 김미경, 송지영, 이명욱, 조정옥, 차혜경, 최안나, 허인자 등 총 7명의 학생이 수료하였으며, 이날 임성진 학감님이 졸업생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셨다. 이외에도 지난 5월 18일 (목) 집중영어프로그램 봄학기 종강기념 파티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있었다. 강사진과 학생 전원이 각각 정성스럽게 장만해온 음식을 나누면서, 학생들이 선보인 미니음악회로 더욱 분위기가 고조된 이날 파티에서 강사진은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을 칭찬함으로 격려하였으며, 영어공부에 계속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월드미션대학교 총 25명 학위수여식

학위수여식

월드미션대학교는 오는 6월 3일 (토) 오후 1시에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제 15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올해로 15회째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졸업생 학위과정을 보면 학사(B.A.) 과정에 11명, 석사(M.A.) 과정에 2명, 목회학석사(M.Div.) 과정에 12명 등 총 25명이 학위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예편한 후에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법인이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영 장로가 명예 인문학박사를 받는다.

이번 졸업식에는 Southwestern College 총장이신 Brent Garrison 박사가 "이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BA: 강명석, 김선영, 김소영, 김영준, 박기홍, 박영산, 이귀란, 이인미, 이지나, 정연희, 박지은 (11명)

MA: 김진주, 문혜원 (2명)

M.Div: 강태준, 김영종, 노광조, 백희숙, 양덕승, 오하영, 우상문, 이지혜, 장원욱, 최준영, 한대연, 홍표란 (12명)

월드미션대학교 약사

(Brief History of WMU)

1989년 3월 27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 사이에 균형을 이룬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육성을
설립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가 설립되었다.

1988. 11. 28	선교신학대학 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1989. 3. 1.	임동선 목사 학장으로 취임하다.
1989. 3. 1	이원희 목사 학감으로 부임하다. (1990. 2. 28 퇴임)
1989. 3. 27	신입생 32명으로 본교 개강, Donald A. McGaveran 박사 초청 개교기념 특별강좌를 개최하다.
1990. 3. 1	학감으로 김기철 목사가 부임하다. (1990. 12. 31 퇴임)
1991. 3. 18	신학석사 (M. Div., M.A.) 가주교육국 인가 (BPPVE 94310) 취득하다.
1991. 9	Quarter제에서 Semester제로 변경하다.
1992. 1. 1	이정근 목사 학감으로 부임하다. (2000. 2. 23 퇴임)
1992. 5	학교 교가 제정하다. (임동선 작사, 박재훈 작곡)
1992. 5. 31	제1회 학위수여식 거행하다.
1992. 8. 18	대학학부 인가취득, 학부를 세계선교신학대학으로, 대학원을 세계선교신학대학원으로 하다.
1992. 9. 27	모스크바 세계선교신학원을 개교하다.
1993. 5. 10	미 이민국에서 I-20 Form 발행을 허가 받다.
1993. 5. 23	제2회 학위수여식 거행하다.
1993. 6. 29	종합대학교로 개편, 명칭을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로 변경하다.
1993. 12. 11	총장에 임동선 목사, 부총장 겸 대학원장에 이정근 목사를 선임하다.
1994. 5. 29	제3회 학위수여식 거행하다.
1994. 10. 9	목회학 박사 학위 주 정부 인가 취득하다.
1995. 1. 1	박광철 목사 부총장으로 취임하다. (1998. 8. 7 퇴임)
1995. 6. 4	제4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6. 6. 2	제5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7. 6. 1	제6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8. 6. 7	제7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9. 3. 25, 28	개교 10주년 기념예배 및 행사를 거행하다.
1999. 6. 6	제8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9. 7. 1	주정부 완전 인가 (Full Approval)를 취득하다. 유아교육과, 평신도학과를 인가 받아 신설하다.
1999. 10. 1	임성진 목사 학감(교무처장)으로 취임하다.
2000. 2. 24	안용식 목사 대학원장으로 취임하다. (2001. 11. 10 퇴임)
2000. 6. 4	제9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2001. 1. 15	Mr. Mckenna 부총장으로 취임하다.
2001. 6. 3	제10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2002. 1. 15	강준민 목사 부총장으로 취임하다.
2002. 6. 2	제11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2003. 1. 6	학교건물을 구입하다.
2003. 1. 8	미 이민국에서 SEVIS I-20 (I-17) Form 발행을 허가 받다.
2003. 6. 1	제12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2003. 8. 23	새 교사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다.
2004. 2. 20	ABHE로 부터 Candidate Status (준회원자격)을 부여 받다.
2004. 6. 5	제13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2004. 8. 30	원격교육센터를 신설하다.
2005. 1. 24	음악학과를 신설하다.
2005. 6. 4	제14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2005. 12. 1	TRACS로 부터 Candidáte Status (준회원자격)을 부여 받다.
2006. 2. 17	ABHE로 부터 Full Membership Status (정회원자격)을 부여 받다.
2006. 6. 3	제15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